

광 고

원양산업

제 1148 호
(2022년 8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협회 제16차 이사회 개최 / 4
- 2022년 2분기 외국인 선원 합동점검 회의 개최 / 5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2년 7월 보고 내용 / 6
- 요리 만들기 / 10
(오징어볶음)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11
 -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달 대비 10% 하락 / 11
- 참치어업 동향 / 13
 - 방콕 가다랑어 가격 1,625 달러로 상승 / 13
 - 미 "태평양 도서국 지원 예산 3배 증액" / 13
 - 6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 전달 대비 감소 / 14
 - PNG 총리 "참치 가공 완제품 생산국 전환이 목표" / 14

-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자원 건강하지만 주의 필요 / 15
- 6월 PNA 항구 전채량 약 5만 8,850톤 / 15
- '21년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 10년 내 최저 / 16
- NGO, WCPFC 어선원 보호에 우려 제기 / 16
- 日 6월 냉동 참치 원어 수입 통계 발표 / 17
- 냉동 눈다랑어 수입 단가 1,026 엔 / 18
- 마다가스카르-일본 새로운 참치 어업 계약 체결 / 18
- 만타 가다랑어 가격 1,800 달러 선 유지 / 19
- 상반기 동부태평양 황다랑어 어획량 17% 증가 / 19
- IATTC 회의서 전채 및 모니터링 관련 합의 성사 / 20
- 2021년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량 3만톤 증가 / 20
- 동부태평양 선망선 여창 용적, 역대 최고 / 21
- ISSF "열대참치 선망선 감소" / 21
- ISSF,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자원 녹색으로 변경 / 22
- Jealsa, 수산물 통조림 가공에 인공지능 도입 / 22
- 대양별 dFAD 참치 군집 기간 연구 / 23
- OPAGAC 인도양 가다랑어 어업 MSC 인증 획득 / 23
- 참치캔 원자재 가격 하락 / 24
- 태국 바트화 가치 하락 추세 반전 예상 / 24

Contents

• PNA 어업 MSC 눈다랑어 범위 확장 제한 / 25	■ 공치어업 동향
• OPAGAC 인도양 가다랑어 어업 MSC 인증 / 25	• 日 연구기관 “공치 내유, 소폭 회복 예상” / 35
• 트라이마린, 눈다랑어 MSC 인증 가까워져 / 26	• 日 냉동 공치 5월 말 재고 5,296톤 / 36
• EU 수산위원회, 모리셔스 수산협정 6개월 연장 / 26	
■ 오징어어업 동향	■ 각국 수산 동향
•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 생산량 증가 / 27	• NGO, 美 인신매매 보고서 대만 등 평가 비판 / 37
• 아르헨티나 상반기 일렉스 오징어 수출, 12% 증가 / 27	• MSC 규정, 어획통제규칙 관련 사항 변경 / 38
■ 명태어업 동향	• WTO, 보조금 협정 1년 내 이행 촉구 / 38
• 러시아 7월 13일 어획량 250만톤 돌파 / 28	• MSC, 유령 어구 관련 표준 변경 / 39
• 러시아 상반기 수산물 수입 급락...수출 급증 / 28	• 주요 국제 운임, 계속해서 하락 / 39
• 러시아, 새 “해양 독트린” 우선 과제로 어업·양식 지목 / 29	• 항만 혼잡으로 컨테이너 운송 차질 계속돼 / 40
• FSA, 동사할린 명태 어업 MSC 획득 / 29	• 中, 소말리아 수역 원양어업 기회 증대 논의 / 40
• 러시아 수산회사, 명태 H&G 생산 집중 / 30	• 책임어선기준(RFVS) 업데이트 / 41
• 러시아, 수산물 철도 운송 보조금 추가 지원 / 30	• 28주차 노르웨이 고등어 수출 가격 반등 / 41
• 러시아 노레보·RFC 신조선 1척씩 인도 / 31	■ 쉬어가는 난 (시)
• 美, 수입 금지된 러시아산 수산물 여전히 반입 / 32	• 바다로 나가볼까 <이상호> / 42
• 러시아, 연해주 명태 1만톤 어획 / 32	■ 국내 수산 정보
• 美 명태 업계, 필렛 생산 집중...연육 생산 영향 / 33	• 7월 오징어 국내 동향 / 43
• 英, 러시아산 흰살생선에 수입 관세 35% 부과 / 33	• 7월 명태 국내 동향 / 45
• 알래스카 명태 가격 견고, 향후 완화될 수도 / 34	• 8월 이달의 수산물 오징어·참돔 선정 / 47
• 日, 美 명태 연육 가격 역대 최고치 / 34	• 추석 장바구니 물가,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로 잡는다 / 48

협회 제16차 이사회 개최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협회 기금 사용 건 심의



우리 협회 제16차 이사회가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협회 사무국은 이날 주요 업무 추진 사항으로 △다자협상 주요 결과 및 계획, △양자협상 추진계획, △‘투발루 어촌뉴딜 ODA’ 예산 확보 및 실사단 파견, △제1차 「수산분야 주요 원양·수출입 기업 CEO 초청 세미나」 개최 계획, △협회 제15차 이사회 결의 사항 후속조치 보고,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이행매뉴얼 마련, △케이프타운 협정

추진동향, △해외수산협력센터 조직 안정 및 전문성 강화 방안, △「제1차 민·관 업무협의회」 건의자료 검토 등을 보고했다.

사무국은 보고 사항 중 ‘투발루 어촌뉴딜 ODA’에 대해 최근 총 60억 신청 예산(‘23~’26) 중 ‘23년도 예산 20억의 배정이 확정되었다고 보고했다.

이어 협회 기금 사용의 건과 협회 장학기금 사용 추진의 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이사회에 앞서 회장단 간담회가 11시 30분에 협회 인근 식당에서 개최되었다.

2022년 2분기 외국인 선원 합동점검 회의 개최

승선자 송출비용 부담 여부, 임금 보장 여부 등 조사



「2022년 2분기 외국인 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 노사정 합동점검 회의」가 지난 7월 29일 우리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노사정 합동점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이 6회차이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박승희 사무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김택훈 본부장,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김영수 본부장, 우리 협회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우리 원양선사 34개사, 182척에 승선한 4,032명의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송출비용 부담 여부, △임금보장 여부, △하선 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및 조치 여부, △휴식시간 부여 여부, △인권 고충상담 실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선사가 개선안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분기 합동점검은 10월 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사 대표자 · 주소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승진수산	강정봉	윤동호
	부산 서구 충무대로 234, 324호(우양냉장)	부산 중구 중앙대로 88, 802-1호(은산베이빌딩)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7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수산 해양경제부 장관, 다카르 어업 냉장창고 공사 현장 방문

- 6.24(금) Alioune Ndoye 주재국 수산 해양경제부 장관은 다카르 시 Hann 지구 내 어업 냉장창고 공사 현장에 방문함.
- 한국 정부가 25억 프랑세파(Fcfa)를 공여하고 세네갈 정부에서 5억 Fcfa 지원한 동 냉장창고 시설 건설 사업은 냉동고 3개, 20톤/일의 얼음을 생산하는 공장 1개, 저장고 1개,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며 금년 11월에 개소할 예정임.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kg	1,289
	1.8kg	1,240
	1.5kg	1,091
황다랑어	10kg	1,438
	3.4kg	1,339
	1.8kg	1,240
눈다랑어	10kg	1,289
	3.4kg	1,289
	1.8kg	1,240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다카르항	347 유로/MT	경유	'22.7.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피지투자청, 신규사업 외국인 투자 관련 일부사항 개정

- 외국인 사업지등록 및 납세 ID를 등록해야 함.
- 등록 이후 3개월 이내에 최소 300,000 달러를 투자 보증금 및 현지 지불 경비 성격으로 피지은행에 회사 계좌를 만들어 입금 시켜야함.(개정 전에는 투자 보증금 예탁 같은 구체적인 조건이 없었음)

나. 제51회 태평양제도 포럼회의(PIF) 관련

- 9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을 특사로 하는 한국 대표단 본대 피지 도착, 10~13일 남태평양 각 도서국 VIP 회담 및 포럼 참석
- 14일 수바항 시찰, 피지 수산부 장관 미팅, 선원 묘지 참배, 교민 간담회 개최, 15일 투발루 수산부 차관 및 수산청장 조찬 미팅 후 피지 출국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000	로인가공용(PAFCO)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1,550달러/MT	MGO	'22.8.10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및 연근해 어장인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평균 어획율은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0.2~0.4톤임.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50	
눈다랑어	라운드	1,350	
가다랑어	라운드	1,350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조사일
Clipper, Oil	\$4.41(gallon)	'22.8.9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뉴질랜드 해저산맥의 저층 트롤 금지 목소리 커져

- 뉴질랜드 해저산맥의 저층 트롤을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환경단체에 의해 청원서가 제출된 상태며, 이에 수산업계와 환경보호단체 사이의 공방이 오고 가고 있다.
- 수산업계는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넓은 면적에서 저층 트롤이 조업하고 있지 않고(총

EEZ 면적의 3.5%), 뉴질랜드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의 90% 이상이 저층 트롤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 금지는 뉴질랜드 경제에 과도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저층 트롤 조업을 동일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호 등의 추가적 파괴는 없다는 것이 수산업계의 의견이다.

- 환경파괴는 자원고갈로 가는 지름길인데, 자원의 고갈을 가장 피하고 싶은 단체는 수산업계이므로 수산업계는 지속가능한 조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업금지에 합의하여 먼 미래에도 자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 뉴질랜드 경제와 환경보호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므로 전면금지가 아닌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가자는 수산업계의 의견도 있다.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Z	1,392달러/MT	MGO	'22.8.2

다.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HOKI	2L	2,850	Sea Jho Co LTD.
	L	2,850	
	M	2,650	
	S	2,350	
HAKE	3L	4,950	
	2L	4,750	
	L	4,250	
	M	-	
	S	-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수산양식개발부, 어민들에게 합동으로 어선 구입 역설

- 수산양식 개발부 차관 Moses Anim은 어업 분야의 가나 국민들이 자국 내 어선의 구매와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원을 함께 끌어 모을 것을 권장함. 차관은 이것이 외국인과의 어선 공동소유 사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믿음.
- 그는 가나인들이 어선들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나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수산자원의 통제와 관리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함.
- Annim씨는 또한 가나 해양대학교에 더 많은 가나인들을 선박 운영의 기술적 영역에서 훈련시켜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떠날 때 가나인들이 트롤 어업 부문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가나인들은 트롤 어업을 운영 면허에 대한 본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트롤 어업 분야에 있는 여러 기회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해야만 한다고 말함.
- Anim 차관은 얼마 전 Accra에서 어업 거버넌스 개선 프로젝트 하에 서아프리카 지역의 미디어 실무자들을 위해 조직된 미디어 교육 워크숍에 참가 이를 역설함.
- 어업 거버넌스 개선(IFG) 프로젝트는 Hen Mpoano, 프렌즈 오브 더 네이션(FoN), 환경정의 재단(EJF), TMT(TM Tracking), 서부 및 중부

기니만 수산위원회(FCWC)가 시행하고 있음.

- 가나와 더 넓은 인근 지역에서 시행된 IFG 프로젝트는 Ocean 5와 Oak Foundation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음.
- 3년간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가나 및 서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투명성 강화, 법 집행, 협업 관리, 역량 강화 등 핵심 정책 분야에서 어업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및 업계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연구는 어선에 승선해 어업에 종사중인 가나 선원들이 그들의 업무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나. 어부들 조업 재개 준비

- 한 달여간 쉬었던 전통 어업 활동이 8월 1일부터 재개될 것임.
- 수산양식개발부(MoFAD)가 올해 6월 1일 수산 위원회와 공동으로 시행한 금어기는 어획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S\$)/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2,200	
	10kg 하	1,760	
가다랑어	3.4kg 상	1,350	
	1.8kg 상	1,300	
	1.5kg 상	1,150	
	1.5kg 하	1,000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기타
양상급유	1,220달러/키	MGO	'22.7.31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관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조업일수(VD) 이전 관련

- 원양협회 및 소속 회사들은 금년 VD 매입에 있어서 예년에 근거해 PNG 및 키리바시에서 구매를 했으나, 라니노로 인한 집어가 금년에도 PNG해역에서 계속되고 있어서 지난 7월부터 PNG VD 추가 구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키리바시에서 구매했던 VD 중 일부의 PNG 이전을 PNG 수산청에 요청했으나, 금일(8월8일)까지 긍정적인 답을 얻는데 실패를 하고 있음.
- 명예해양수산물관으로서 이 건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자 여러모로 노력을 했으나, 선거기간 및 수산청장의 교체로 인해 신입 청장이 민감한 문제를 선뜻 결정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곧 있을 수산청 직원의 구인 및 교체 그리고 선거로 인하여 동 건을 무난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번주 내로 어떠한 형태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수산청에서 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네고를 한 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동 건 관련하여, 원양협회 및 선사들은 PNG 수산청과 상의를 통해, PNG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대의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선거 완료

- 제11차 PNG 총선의 결과는 명일(8월9일)에 국회에서 이합집산을 통하여 그 결과가 나올 것임. 단지 PNG 선거 사상 유례가 없는 혼란과 부정부

패의 이미지는 오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짐.

- 집권당이었던 PANGU Party가 여전히 수적으로 우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로 인하여 제 2당의 당수인 Mr. Peter Onil은 자신의 사욕을 버리고 누군가와 정권을 창출시킬 수가 있다면, 자신의 당에선 부수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수상을 추대한다고 공표를 했음.
- 결과는 알 수 없으나, 집권당에선 정권의 재창출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별 다른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임.

다. 어류가격 동향

어종	단가	규격	기타
할 바다가재	27.82달러	0.6~1kg	
	37.00달러	1~1.5kg	
	47.43달러	1.5kg 이상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유종	조사일
TWL Logistics Ltd	1.0659달러/리터	Diesel	'22.8.8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물관 성명 가나다순)



오징어볶음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오징어 3마리, 양파 1/2개, 당근 1/4개, 청고추 2개, 홍고추 1개, 대파 1줄기, 식용유 2큰술, 참기름 2큰술

<양념장 재료>

- 고춧가루 3큰술, 설탕 1큰술, 매실청 1큰술, 간마늘 1큰술, 진간장 3큰술, 고추장 1큰술, 후추 약간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오징어 내장과 껍질을 제거 후 칼집을 내 한입크기로 자른 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준다.
- ② 양파는 채 썰고, 당근은 반달모양으로 청고추, 홍고추, 흰파, 대파는 어슷썰고 쪽파는 송송 썬다.
- ③ 양념장 재료를 넣고 섞은 후 오징어와 파와 쪽파 제외한 나머지 야채를 섞어 준다.
- ④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파의 흰 부분을 넣어 볶아 파기름 만든다.
- ⑤ 4의 팬에 3의 오징어와 야채를 센불에 빠르게 볶아준다.
- ⑥ 야채와 오징어가 익으면 참기름 넣고 쪽파를 올려 완성한다.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달 대비 10% 하락

유가 예측, 변수 많아 불가능

현재 유가는 미국 상업원유재고 증가, 중국 거시경제 지표 부진, 이란 핵합의 재협상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8월 15일 기준 두바이 유 가격은 배럴당 94.97 달러, WTI 가격은 89.41 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93.93 달러를 기록했다.

8월 11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벙커 가격은 톤당 1.005 달러로 7월 12일(1,120 달러) 대비 10% 하락했다. 8월 평균(8.1~8.11) 가격은 991 달러로 7월 전체 평균 대비 10% 감소, 2021년 8월 전체 평균 대비 76%, 2020년 8월 대비 161% 상승했다. 2022년 평균(1.1~8.11) 가격은 1,056.86 달러로 2021년 전체 평균 대비 81% 상승, 2020년 평균 대비 174% 상승했다.

시장은 향후 유가의 방향성에 주목한다. 하지만 유가는 변수가 너무 많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는 '떨어지는 유가는 거의 예측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가 하락을) 축하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에너지 가격은 예상외로 갑자기 급락할 수 있는 것만큼 쉽게 급등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유 생산국들의 불안정성, 정치적 변수, 석유기업 경영진의 투자 결정 등 수많은 요소들이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에너지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늘 바보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유가가 다시 반등할 요인도 상당히 많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곳곳을 봉쇄했던 중국은 결국 다시 문을 열게 될 것이고, 이는 원유 수요 증가

로 이어진다. 미국의 전략비축유(SPR) 방출이 11월 끝나면 이를 다시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허리케인 여파로 휴스턴 지역 해협이 범람해 선박 운송이 어려워지거나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멕시코만 인근의 정유시설들이 가동 중단될 경우 유가가 다시 치솟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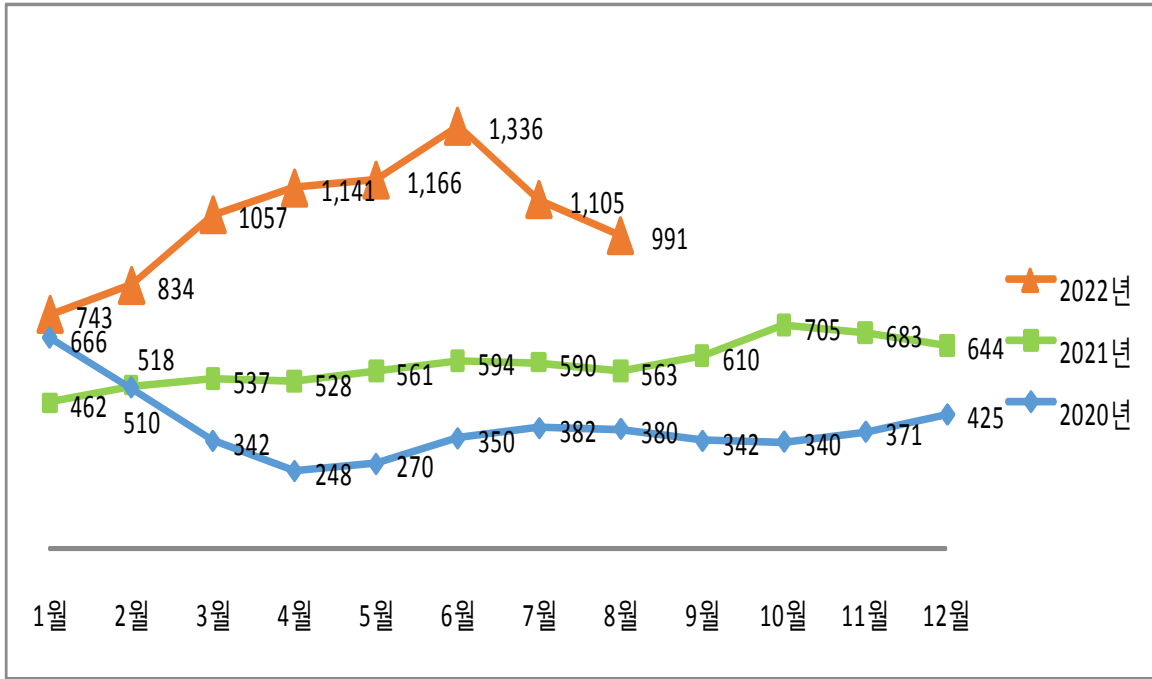
반면, 이란이 이슬람 혁명수비대를 미국의 테러 관련 명단에서 제외하라는 요구를 철회하고 새로운 핵협상 초안에 동의한다면 일일 석유 수출량이 최소 100만 배럴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곧 추가적인 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분석업체 ESAI에너지의 사라 에머슨 사장은 "유가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며 "중국이 3분기 원유 수입을 줄일 것으로 보이며, 여름철 휘발유 소비시즌이 끝나는 데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 공급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가가 다시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종료와 유럽이 겨울철 천연가스 대신 기름을 사용해 난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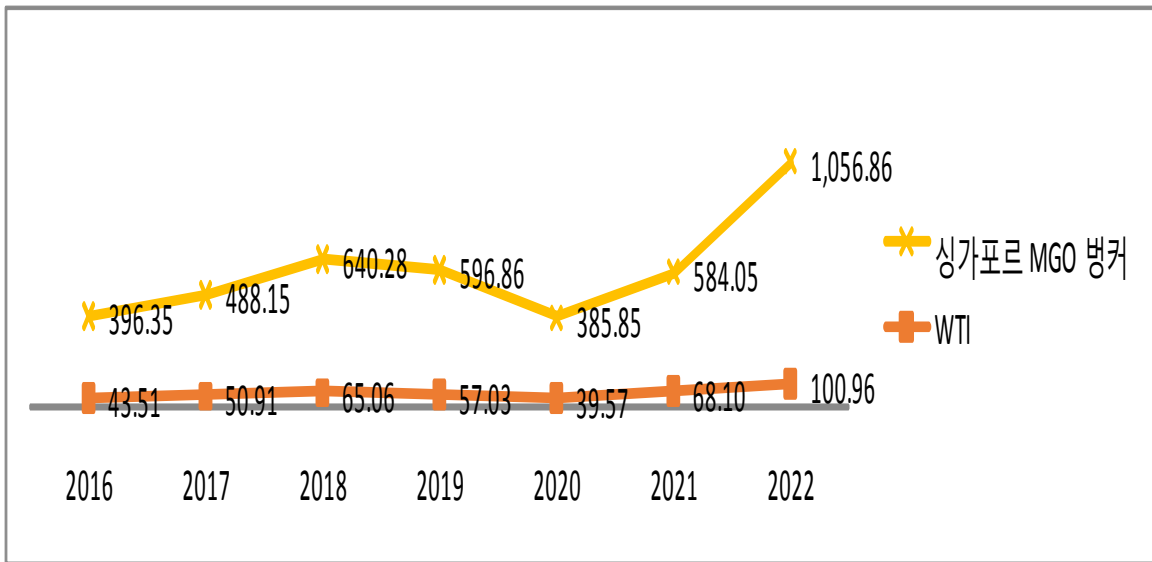
한편, 골드만삭스는 러시아의 공급 차질에 따른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끝나지 않은 데다 원유 시장이 계속 공급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여기에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도 올해 말에 끝난다. 이들은 브렌트유 가격이 올해 연말까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월 평균 싱가포르 벙커 가격



연 평균 MGO 벙커, Brent, WTI 가격



* '22 8월 가격(8.1~11), '22 가격(1.1~8.11)



방콕 가다랑어 가격 1,625 달러로 상승 중서부태평양 FAD 조업 금지, 가공업체 수요 증가

방콕에서 2개월 동안 냉동 가다랑어 원물 거래가 부진한 이후 최근 중서부태평양 FAD 조업 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가공업체의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이 상승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가다랑어 현물 가격은 톤당 약 1,625 달러로 3주 전 1,450 달러 대비 12%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가격이 향후 2~3주 동안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AD-free MSC 참치는 75 달러 가량 높은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가다랑어 가격은 중서부태평양 FAD 조업 금지로 인해 7월말~8월초, 때로는 8월 내내 상승했다.

태국의 주요 참치캔 가공공장 중 한 곳은 현재 상당한 양의 가다랑어 원물이 항구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장은 많은 양의 원어가 방콕 항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중서부태평양의 데이터에 따

르면 6월 PNA 항구에서 전채된 냉동 참치 원어는 약 5만 9,000톤으로 6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의 절반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머지 물량이 향후 방콕으로 향할 수 있다.

가다랑어 가격의 움직임은 이제 태국 가공업체가 냉동 창고에 얼마나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소식통은 “참치캔 가공공장들의 수요가 연말 판매를 위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재고가 적을 경우 현재의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고려할 것이며 더 낮은 가격을 예상하고 9월말까지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FAD 금지 기간 동안 양호한 어획량을 기록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9월에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공식이 적용이 적용되지 않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28일자, 8월 2일자

미 "태평양 도서국 지원 예산 3배 증액"

태평양도서국포럼에서 키리바시 탈퇴 뒤 나온 발언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은 13일 피지 수바에서 지난 11일 개막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키리바시와 통가에 대사관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협력 강화에는 경제 개발 및 해양 복원력을 위한 재정 지원을 연간 6,000만 달러(약 783억원)로 3

배 증액할 것과 태평양제도 포럼에 첫 미국 특사 임명이 포함된다.

한편,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서 친중국 성향인 키리바시가 탈퇴하면서 태평양 도서국 간에 균열이 포착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18일자



6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 전달 대비 감소

PNG 수역에서 전체 조업 노력의 47% 발생

6월 PNA 수역과 공해에서의 선망선 어획량은 13만 3,570톤으로 5월에 비해 약 10% 감소했다. 하지만 2019년에서 2021년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3개월 연속으로 서부지역 특히 파푸아뉴기니(PNG) EEZ에서 조업 노력량이 가장 많았다. PNG 수역 선박조업일수제도(VDS) 사용 일수는 약 1,700일로 전체 조업 노력의 47%를 차지했다. 6월이 VDS 사용일수가 가장 많았던 달은 아니지만(2021년 5월 최고치) 선장들은 여전히 PNG 수역을 선호하고 있다. 6월 PNG 수역 일일 평균 어획량은 34톤, 총 어획량은 7만 5,000톤이다.

키리바시 EEZ에서의 조업 노력량도 증가했다. 어획

량은 약간 감소지만 PNA 지역 중 두 번째로 많았다.

6월 PNA 전체 일일 평균 가다랑어 어획량은 30톤으로 5월보다 5톤 감소했지만 여전히 통상적인 어획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형 황다랑어 일일 평균 어획량은 4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올해 가장 높은 어획량 중 하나이다.

가다랑어와 황다랑어를 합친 일일 평균 어획량은 34톤으로 통상적인 어획량 수준보다 높다.

황다랑어 치어 어획량은 감소했지만 소형 눈다랑어 어획량은 안정적이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19일자

PNG 총리 “참치 가공 완제품 생산국 전환이 목표”

어업 등 신규 투자자, 가공처리·제조 포함 필수

파푸아뉴기니가 수산물 원료 수출국에서 완제품 생산국으로의 전환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1~15일 개최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정상회의에서 James Marape 파푸아뉴기니 총리는 정부가 참치 가공 부문 성장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Marape 총리는 PIF 국가들이 전 세계 황다랑어 공급량의 60% 이상을 생산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태평양 도서국들이 원어 수출만이 아니라 완제품 수출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파푸아뉴기니 총선에서 재선이 목표인 Marape 총리는 이러한 전환이 새 정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arape 총리는 수산 자원 부문 현업자들이 단순한 어획·원어 수출만이 아니라 완제품 생산·수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Marape 총리는 또한 어업을 비롯해 자국의 자원 분야에 진입하길 원하는 신규 투자자들은 지원서에 가공처리·제조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7월 18일자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자원 건강하지만 주의 필요

가다랑어 생물량 감소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2022년 8월 10~18일에 열리는 과학위원회에 앞서 자원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가다랑어 어종은 남획되거나 남획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보고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원이 점점 더 고갈되고 있으며 적도 부근에서 주도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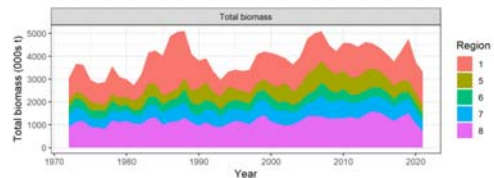
평가에 따르면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지표로 알 수 있는 산란 잠재력(번식 능력)은 지난 20~30년 동안 어획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았다.

치어와 성어 연령대의 평균 어획 사망률은 분석 기간 동안 증가했다.

가다랑어 생물량은 중서부태평양 8개 수역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장 크게 감소한 수역

은 수역1(중국, 한국, 일본)이다. 수역8(키리바시, 피지, 아메리칸 사모아, 사모아, 투발루, 쿡제도) 역사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적인 참치 총량은 1980년대 이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다.

가입량(개체군 증가 또는 이주로 인해 이용(어획)할 수 있는 자원에 추가된 새로운 어류의 양)은 동부 수역과 공해를 제외한 모든 수역에서 감소했다. 동부 수역 가입량 증가는 최대 규모의 참치 어장인 키리바시가 동부 수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8월 3일자

6월 PNA 항구 전재량 약 5만 8,850톤

5월 대비 17% 감소

나우루협정당사국(PNA) 항구의 전재량은 5월 대비 약 17% 감소한 5만 8,850톤을 기록했다. 중서부태평양 항구의 5월 운반 활동이 지난 3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급감은 특히 눈에 띈다. 다만 선망선 중 절반만이 6월분 어획물을 운반선에 넘겼고, 다른 선망선은 7월에 만선이 되면 어획물을 전재할 예정이다.

항구별로는 마당, 라바울 등 파푸아뉴기니(PNG)

항구의 전재량이 가장 많았다. 전체 전재량의 약 58%에 해당하는 총 3만 4,133톤의 원어가 해당 지역에서 전재되었다.

마이크로네시아(FSM) 항구의 전재량은 5,000톤을 기록했다. 한편 키리바시의 전재량은 지난달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마셜제도 마주로의 전재량은 약 5,000톤 감소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20일자



'21년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 10년 내 최저 어획량 인도네시아, 한국, 대만 순

8월 10~18일에 개최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18차 과학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주요 상업용 참치 어종 어획량은 2020년 대비 8% 감소한 249만 3,571톤이다. 선망선 어획량은 174만 370톤으로 지난해 대비 7.5% 감소했다.

업종별 어획량 비중은 선망선 70%, 연승선이 8%, 참치 채낚기선이 5%, 나머지 17%이다.

국적별 어획량을 살펴보면 상위 10개국 선단(주로 선망)의 어획량이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 국적선 어획량은 46만 5,071톤으로 가장 많았지만 2020년 대비 10% 감소했다. WCPFC 등록부에 인도네시아 어선이 13척(소규모 선망선 11척, 참치 채낚기선 2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획량은 놀랍고 당혹스럽다. Atuna는 지난해 기사에서 인도

네시아 어획량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과 인도네시아 당국이 WCPFC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 기재된 어획량이 모두 인도네시아 EEZ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25만 5,221톤), 대만(25만 601톤), 일본(23만 4,016톤), 키리바시(18만 8,073톤), 필리핀(17만 7,078톤), 파푸아뉴기니(16만 9,340톤), 마이크로네시아(15만 4,636톤), 나우루(12만 113톤), 마셜제도(9만 2,643톤)가 인도네시아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국 선단 중 나우루와 대만 선망선만이 2020년에 비해 참치 어획량이 증가했다.

어종별 어획량은 가다랑어 62%, 황다랑어 28%, 눈다랑어 7%, 날개다랑어 3%이다. 선망선 어종별 어획량은 가다랑어 72%, 황다랑어 23%, 눈다랑어 5%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29일자

NGO, WCPFC 어선원 보호에 우려 제기

어선원 노동 기준 관련 보존관리조치에 엄정한 기준 적용돼야

해상 인권 관련 NGO인 Human Rights at Sea와 세계자연기금(WWF)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어선원 노동 기준에 관한 회기간 작업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는 법적 및 인권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WCPFC의 어선원 노동 기준에 대한 보존관리조치(CMM) 개발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두 기관의 공동 서한에는 △국제인권장전에 따른 명시적 인권 언급, △공익을 위한 해상 국제법(international rule of law at sea)의 명시적 지지, △초안을 악화시키려는 국가의 시도와 국가 거부권의 위협, △학대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책과 해상에서의 집행 필요성 등 4가지 사항이 강조되어 있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2년 7월 25일자



日 6월 냉동 참치 원어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299톤 수입

어종·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누계
날개 다랑 어	한국	113	6	16	96	44	98	373
	대만	625	298	49	951	-	635	2,558
	바누아투	-	1	71	522	436	301	1,331
	기타	15	15	-	2	26	146	204
	소계	753	321	137	1,569	506	1,179	4,465
황다 랑어	한국	221	210	596	513	539	163	2,242
	중국	47	284	120	430	550	553	1,984
	대만	603	1,031	1,318	2,425	1,603	1,601	8,581
	필리핀	123	-	131	493	69	50	866
	인도네시아	-	-	-	-	-	-	-
	미국	-	-	-	-	-	-	-
	바누아투	148	24	72	103	248	249	844
	피지	23	50	-	-	-	68	141
	키리바시	29	-	-	-	101	135	265
	마셜제도	551	-	149	50	51	50	851
	기타	564	587	568	1,316	410	815	4,260
소계	2,309	2,187	2,954	5,329	3,573	3,685	20,037	
눈다 랑어	한국	11	30	27	113	412	299	892
	중국	177	467	502	592	339	1,409	3,486
	대만	1,372	2,158	2,438	4,084	1,632	3,329	15,013
	세이셸	103	874	310	792	526	671	3,276
	바누아투	138	318	47	629	490	790	2,412
	기타	135	32	207	110	239	156	879
	소계	1,937	3,880	3,531	6,319	3,638	6,653	25,958
남방 참다 랑어	한국	449	-	-	-	-	-	449
	대만	95	5	-	2	4	1	107
	호주	-	-	-	-	-	-	-
	소계	544	5	-	2	4	1	556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8월 5일자



냉동 눈다랑어 수입 단가 1,026 엔

지난해 대비 36% 높아...6월 반입량 급증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2022년 6월 참치류 수입 실적은 신선냉장 수입량 413톤(지난해 동월 대비 33% 감소), 수입 금액 6억 9,500만 엔(17% 감소)이다. 냉동 수입량의 경우, 눈다랑어 반입량이 대폭 증가한 것에 힘입어 1만 6,079톤(52% 증가), 수입 금액 169억 4,600만 엔(92%)으로 급상승했다. 가공품 수입량은 4,629톤(1% 감소), 수입 금액 33억 8,700만 엔(25% 증가)을 기록했다.

냉동 눈다랑어 GG(아카미, 내장 제거)의 CIF(수출업자 운임보험료 부담 가격) 기준 단가는 kg당 1,026 엔

(36% 상승)으로, 5월 단가인 1,018 엔 대비 상승했다.

냉동 눈다랑어 반입량은 6,653톤(140% 증가)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주력인 대만산은 3,329톤(124% 증가)으로 급증해, 매입가가 상승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유류비 상승, 엔화 약세, 전재선 확보 문제, 인도네시아 선원 문제 등 부정적 요인이 많고, 게다가 이번 분기 인도양 어획 양상은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9월 시작되는 여기에 출어할 어선 척수도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8월 5일자

마다가스카르-일본 새로운 참치 어업 계약 체결

연승선 12척 조업 계약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참치 입어에 대해 EU와 여전히 협상 중이지만 일본 참치 어업 그룹과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마다가스카르가 이 계약으로 얻는 이득은 100만 유로이다. 계약으로 12척의 연승선이 입어할 수 있으며 기간은 2년이다. 과거 계약에서는 오피버 승선이 의무였지만 이제 6,000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면 승선을 회피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원양어선이 마다가스카르 EEZ에서 조업 중이다. 2018년에는 중국 어선에도 문호를 개방했

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마다가스카르 EEZ에서 약 17개국 277척의 어선이 발견되었다.

마다가스카르는 EU와 수산협정을 4년 동안 협상 중이다. 협상은 4년 동안 여러 차례 중단되었지만 7월 6일에 재개되었다. 협상 지연은 마다가스카르가 보다 많은 재정적 이익을 위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25일자



만타 가다랑어 가격 1,800 달러 선 유지

조업 상황 매우 좋지 않아

현재 만타 가다랑어(1.8kg 이상) 현물 가격은 1,800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소식통은 모든 조건이 갖춰져 조만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가다랑어 가격은 3월 이후 1,800 달러 또는 그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가격을 몇 달 동안 연속으로 유지하는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어떤 거래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1,850 달러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소문이 있다.

방콕 가다랑어(1.8kg 이상) 가격이 현재 수준인 톤당 1,625 달러를 유지하거나 하락하면 더 많은 운반선이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 만타로 향할 수 있다. 이미 중서부태평양과 동부태평양에서 조업 중인 몇몇 미국 국적 선박들은 중서부태평양 도서국 항구에서 전제하는 대신 에콰도르 항구 하역을 선택했다.

참치캔 가공업체들은 재고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참치 원물, 특히 EU 원산지 참치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다.

올해 지금까지의 동부태평양 어업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다랑어 어획량은 지난해 보다 감소하며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금어기가 시작되기 전 몇 주 동안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일부에서는 최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현재의 조업 상황이 계속된다면 동부태평양 참치캔 가공업체는 중서부태평양·대서양·인도양 참치에 크게 의존해야 할 것이다. 일부 소식통은 현재 다양한 국적의 선박들이 만타에서 하역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8월 4일자

상반기 동부태평양 황다랑어 어획량 17% 증가

가다랑어 어획량 4% 감소

2022년 상반기 동부태평양 황다랑어 어획량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한 반면, 가다랑어 어획량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라틴아메리카 항구에 양륙된 참치는 총 37만 1,223톤으로 3%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황다랑어 어획량(16만 9,893톤, 지난해 동기 대비 17% 증가)의 대폭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반면 가다랑어 어획량은 17만 6,625톤으로 지난해 대비 4% 감소했다. 눈다랑어 어획량은 1만 7,737톤으로

24%나 감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상반기 황다랑어 어획량은 거의 비슷했으나 2021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4만 5,584톤을 기록했으며 올해 또 17%나 증가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데이터에 따르면 가다랑어와 황다랑어의 어획량은 점점 근접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8월 9일자



IATTC 회의서 전재 및 모니터링 관련 합의 성사

전재 보고 강화전자 모니터링 작업반 설립 등

제100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회의가 8월 5일자로 종료되었다. 회의에서는 전재 관련 합의와 내년 회의에서 북태평양 날개다랑어 어획 전략 채택 약속이 성사되었다.

IATTC 회원국들은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와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선례를 따라 해상 전재에 대해 더욱 강한 감시를 적용했다.

IATTC에서 옵서버 자격을 보유한 퓨(Pew) 자선재단의 성명에 따르면,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에서 어획 물에 관해 잘못 보고했거나, 일부 사례에서는 아예 보고를 누락해 발생한 허점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IATTC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허점들을 보완한다.

2021년 11월, ICCAT은 어선과 운반선간의 보고 내용을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보고 요구사

항을 강화했다. 이러한 결정은 항만국가 및 기타 관련 검사당국이 전재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항만국조치협정(PSMA)에 대한 권고와도 연관되어 있다.

IOTC는 지난 5월 몰디브 채낚기선을 제외한 모든 참치 운반을 해상이 아닌 항구에서 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비해 IATTC의 결정은 보고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어선 데이터 수집 및 감독 개선을 위해 전자 모니터링(EM) 작업반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국제 과학위원회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하며, ICCAT과 협력해 태평양 참치 자원을 관리한다. 이러한 이유로 WCPFC도 이들의 조치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s, 2022년 8월 8일자

2021년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량 3만톤 증가

FAD 조업 어획량 증가

오는 8월 1~5일까지 개최될 IATTC 연례회의에서 논의될 IATTC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가다랑어 총 어획량은 32만 5,021톤으로 약 3만톤 증가했다. 특히 FAD 조업 가다랑어 어획량은 약 3만 3,700톤 증가했다.

한편, 황다랑어 어획량은 25만 3,486톤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또한 많은 양의 FAD 부수어획으로 인한 것이었다.

동부태평양에서 선망 스쿨조업으로 어획된 가다랑어는 총 9만 7,319톤으로, 2020년 대비 약

5,000톤 감소했다. 반면 황다랑어 스쿨조업은 성공적이었다.

스쿨조업 어획 가다랑어는 대부분 갈라파고스에서 남아메리카 연안에 걸쳐 어획된 반면, FAD 어획 가다랑어는 동부태평양 전역에 걸쳐 어획되었다. 페루 연안 수역에서 스쿨조업 가다랑어 어획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FAD 어획 또한 준수했다.

어획량 증가는 대부분 대형 선망선의 FAD 조업 증가에 기인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21일자



동부태평양 선망선 어창 용적, 역대 최고

에콰도르 선단 32%, 멕시코 선단 24% 차지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영구작업반 회의를 위해 준비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동부태평양 선망선 선단의 잠재적 능력(어창 용적)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IATTC가 수십년 만에 등록부에 여러 척의 선망선을 추가하고 선박의 실제 능력을 업데이트했기 때문이다.

문서에 따르면 동부태평양 선망선의 총 잠재 선단 능력은 2만 9,396m³ 증가한 30만 2,863m³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중 활성화 되어 있는 선망선의 능력은 27만 1,723m³이며 비활성 또는 침몰된 어선의 능력은 9,997m³이다.

‘21년 선망선의 실제 활성 가동 능력은 약 25만 3,323m³였다. 이는 1만 8,000m³가 일시적으로 비활성화 되었기 때문이다.

에콰도르 선단은 잠재 능력의 32%,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선망선 척수는 106척으로 가장 많으며 20년 전에는 76척이었다. 선망선 척당 평균 능력은 776m³이다.

멕시코 선망선은 전체 능력의 24%를 차지하며 척수는 51척이다. 척당 평균 능력은 1,197m³으로 에콰도르보다 어선 규모가 크다. 멕시코 선망선 척수는 ‘05년 59척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10년 39척으로 2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선망선이 일부 신조되며 노후선 또는 폐기된 어선을 대체하고 있다.

미국 선망선은 17척으로 ‘18년 31척 대비 크게 감소했다. 페루도 ‘19년 11척에서 ‘21년 4척으로 감소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27일자

ISSF “열대참치 선망선 감소”

2021년 1,855척→1,808척 소폭 감소

ISSF가 발표한 2022년 7월 대규모 참치 선망선단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참치 선망선 총 척수는 1,808척으로, 2020년 척수인 1,855척 대비 3%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등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가 일부 어선을 목록에서 제외한 것이 원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642척의 대형 참치 선망선이

열대 참치 어종을 어획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3% 감소한 수치이다. 이들의 총 어획소화량은 83만 4,000m³ 이상으로, 지난해의 86만 5,000m³에 비해 감소했다.

642척의 대형 선망선 중 약 16%가 2개 이상의 RFMO에서 어업 허가를 받았다. WCPFC는 대형 선망선이 가장 많이 등록된 기구(317척)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8월 8일자



ISSF,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자원 녹색으로 변경

참치 어획량 중 86.4%가 '건강' 자원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ISSF)의 최신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상업적 참치 어획량 중 86.4%가 "건강한(healthy)" 수준의 풍부함을 지닌 자원에서 조달되었다. 또한 전체 참치 어획량의 9.2%가 남획(overfished) 수준의 자원에서 조달되었으며, 4.4%는 중간 수준의 풍부함(intermediate level of abundance)에서 나왔다.

이러한 수치 상승(2022년 3월 80.5%에서 2022년 7월 86.4%로 상승)은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약 6%를 차지하는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자원 등급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3월 당시,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자원은 전미 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최신 자원평가 부족으로 인해 녹색에서 황색(우려 요소가 있으나 RFMO의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등급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2022년 5월 IATTC에서 새로운 자원평가가 수행되면

서, 2022년 7월 ISSF 보고서에서는 다시 녹색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ISSF에 따르면 인도양 황다랑어, 태평양 참다랑어, 지중해 날개다랑어 자원은 남획(overfished)되고 있으며, 또한 남획 영향 하에(subject to overfishing) 있다.

인도양 날개다랑어와 눈다랑어 자원은 남획 영향 하에 있다.

관리 측면에서, 2022년 3월 보고서 이후 주된 변경 사항으로는 인도양참치위원회(IOTC)가 채택한 새 관리 절차가 포함된 것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3개 참치 자원 중 65%가 '건강' 수준(3월 61%에서 증가)이며, 22%가 중간 수준, 13%가 남획 수준이다. 23개 어종 중 74%가 어획사망률이 잘 관리되고 있으며, 22%가 남획 수준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 기사 출처: ISSF, 2022년 7월 27일자

Jealsa, 수산물 통조림 가공에 인공지능 도입

생산량, 수율 개선 기대

스페인 굴지의 참치캔 가공업체인 Jealsa는 인공지능으로 수산물 통조림의 생산량과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IT 기업 2곳과 손을 잡고 YIELD CAN 5.0 project를 추진한다.

스페인 산업·상업관광부에서 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프로젝트는 방대한 데이터 분석 도구와 머신러닝(ML), 사물인터넷(IoT)으로 빠른 정보 수집을 촉진할 것이다. 평가 후 통계자료를 맞춤형 계기판 자료로 변환해 설정된 사업 KPIs(핵심성과지표)의 최적화를 위한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7월 25일자



대양별 dFAD 참치 군집 기간 연구

대양별로 큰 차이 없어, 군집기간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순

마드리드대학교, 카디스대학교, 위성 부이 공급 업체인 Satlink사 연구원들은 '참치 떼와 dFAD(부유형 FAD)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 음향 측심 부이를 사용한 글로벌 패턴 식별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에서 쓰인 용어는 다음과 같다: ST는 dFAD가 최초 투하 지점에서 계획 지점 도착까지 해상에서 표류한 총 소요 기간, CT는 초기 시작에서 첫 참치 발견까지의 기간, aCRT는 일간(24시간 이상) 부재 없이 dFAD에서 음향 측심 부이에 의해 참치가 모이는 것이 지속적으로 감지되는 기간을 반영해 Tun-AI(기계학습 모델)가 dFAD 내 참치 생물량을 10톤 이상이라고 지속적으로 추정할 일수, aCAT는 Tun-AI가 참치 생물량을 10톤 이하라고 지속적으로 추정할 일수를 계산하고 24시간 이상부터 참치가 dFAD에 지속적으로 부재한 기간이다.

CT, ST로 보면 대양 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CT, ST는 태평양이 제일 길었고 인도양이 제일 짧았으며 대서양은 중간 수준이다. ST 중간값은 태평양이 인도양의

두 배 이상이며, CT 중간값은 태평양이 51일로 인도양 29일에 비해 두 배 수준이다.

ST 기간 동안 군집이 일어나지 않는 비율은 대서양이 27%, 인도양이 16%, 태평양이 11%로 차이가 있다.

참치가 dFAD에 모이는 기간(aCRT)과 이탈하는 기간(aCAT)은 대양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중간값은 aCRT, aCAT 각각 5~7일, 9~11일이다.

참치 떼가 dFAD에 군집된 후 머무는 기간인 OR은 전세계적으로 약 50%, 가장 낮은 중간값은 대서양 24%이다.

Tun-AI 회귀 모델을 사용해 참치 군집 역학을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군집기간(AT)과 비군집기간(DT)은 모든 대양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평균 AT는 대서양 7.6일, 인도양 8.2일, 태평양 15.5일 순이다. 인도양이 AT, DT가 가장 짧았고 태평양이 가장 길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18일자

OPAGAC 인도양 가다랑어 어업 MSC 인증 획득

선망선 14척

스페인 대형냉동참치선박협회(OPAGAC)는 인도양 가다랑어 어업에 대한 MSC 인증을 획득했다. 해당 인증 대상은 인도양 조업 선망선 14척으로 FAD

조업과 스쿨 조업 모두 포함된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7월 22일자



참치캔 원자재 가격 하락

최근 식용유, 철강, MGO 가격 하락

참치캔 가공업체들은 연초부터 비용 증가에 시달려왔지만 최근 식용유, 철강 가격 하락으로 운영비용이 감소하고 있다.

최신 유럽 데이터에 따르면 대두유 가격은 두 달 동안 하락했다. 7월 미국산 대두유의 월평균 가격은 톤당 1,576 달러로 6월보다 12% 조금 넘게 하락했다. 미국의 유럽의 대두유 주요 수출국이다. 아르헨티나 대두유도 7월 평균 1,320 달러로 14% 하락했다. 아울러, 7월 해바라기유 가격도 약 25% 하락했다.

6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식물성 기름 가격지수는 해바라기유, 대두유, 팜유, 유채씨유 가격 하락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가격 하락의 주된 원인은 최근 몇 달 동안 전 세계적으로 관찰된 비용 상승으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에 기인한다.

철강 가격은 최근 몇 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7월 26일 기준 미국 증서부의 국내 열연강판 선물 가격은 851 달러로 연초 1,500 달러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시장 약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올해 및 내년 수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6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 추세이다. 7월 27일 기준 세계 평균 MGO 병커 가격은 톤당 1,278.5 달러, 싱가포르 병커 가격은 1,052 달러이다. 2주 전에 비해 약 100 달러 낮은 가격으로 이는 선망선 선주들이 이달 초보다 1톤의 참치를 어획하는데 연료비로 약 67 달러를 덜 지불함을 의미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28일자

태국 바트화 가치 하락 추세 반전 예상

참치캔 가공업자 환차익 축소 전망

태국 바트화의 가치는 1월 1일 이후 미국 달러 대비 9.4% 평가절하 되어 7년 내 최저치이다.

몇몇 태국 통화 분석가들은 추세가 반전되어 바트화가 향후 3~6개월 동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 카시콘 은행(Kasikornbank)은 바트가 8월말에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했다. 바트가 강세로 전환되면 태국 참치캔 가공업체의 현재 이점은 줄어들 수 있다.

저명한 한 연구 센터는 바트/달러 환율을 연말까지 33.5~34.5 바트로 추정했다. 태국 리서치 기관 크룽타이 컴파스(Krungthai Compass)는 관광 수입 증가로 인한 GDP 개선이 11~12월 바트 강세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국 중앙은행은 8월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25bp(0.25%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15일자



PNA 어업 MSC 눈다랑어 범위 확장 제한

독립 심사관, 어획 통제규칙·FAD 영향 재평가 요청

독립 심사관(IA)은 세계에서 가장 큰 MSC 인증 어업인 PNA 어업의 눈다랑어 범위 확장을 막아섰다. 그는 최종보고서 초안을 환송하고 적합성평가기관(CAB)에 두 가지 지표, 어획통제규칙(HCRs)과 FAD가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점수 재평가를 요청했다.

PNA 참치 어업은 2011년에 세계 최초로 가다랑어, 황다랑어 스쿨어업에 대한 인증을 받은 후 2020년에 FAD 및 눈다랑어 어업에 대한 인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투명한참치어업을위한연합(CTTF)을 비롯한 여러 단체의 반대가 있었다. 독립 심사관은 이러한 반대 15건 중 13건을 기각했다.

PNA는 중서부태평양에서 MSC 인증을 받은 약 150척의 참치 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동원산업, Tri Marine, FCF 등 많은 어선이 별도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이제 심사관이 CAB의 긍정적인 어획통제규칙 점수가(특히 눈다랑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다른 어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발생했다.

MSC 홈페이지에는 중복(overlapping)되는 어업에 대해 “동일한 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동일한 관리체계 하에서 운영되며 동일한 서식지와 종에 영향을 미치는 어업에는 일관된 점수와 인증 조건이 부여되어야 한다. 중복되는 어업을 평가할 시 평가자가 점수와 조건을 일관되게 적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 대해 MSC 대변인은 심사관 결정이 다른 인증 어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MSC는 이 평가와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표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이해하고 이 결정의 광범위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독립 심사관의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14일자

OPAGAC 인도양 가다랑어 어업 MSC 인증

인도양 선망선 14척 해당

해양관리협회의(MSC)가 2년간의 평가 끝에 스페인 대형냉동참치생산지연합(OPAGAC)의 인도양 가다랑어 어업에 인증을 수여했다.

이번 인증은 OPAGAC 인도양 선망선 14척의 가다랑어 어업이 대상이며, FAD와 스쿨조업 양쪽 모

두 적용된다. 이번 인증은 2016년 시작되어 2020년 완료된 어업개선프로젝트(FIP) 등 오랜 기간에 걸친 개선 노력의 결과물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7월 18일자



트라이마린, 눈다랑어 MSC 인증 가까워져

중서부태평양 선망선·연승선·채낚기선

미국 트라이마린사(社) 소속 선망선과 연승선이 해양 관리협의회(MSC) 인증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적 합성평가기관 SCS Global Service는 공개 의견 초안 보고서(PCDR)를 7월 15일 게시했다.

해당 인증의 평가 대상인 중서부태평양 눈다랑어 자원은 세계 최대 MSC 블루라벨 인증을 보유 중인 나우 루협정당사국(PNA) 어업의 어선에서도 어획하고 있다. MSC측은 독립심사기관의 PNA 눈다랑어 어업 재평가 결정 이후,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인증 어업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라이마린의 솔로몬제도 가다랑어·황다랑어 선망채

낚기 MSC 인증 어업에는 선망선 5척과 채낚기선 4척이 포함된다. 지난 2016년 인증을 취득한 해당 어업은 지난해 9월 FAD 인증을 신청했고, 올해 초부터 눈다랑어가 평가 대상에 들어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사기관은 2023년 6월 2차 심사까지 어획전략 및 어획통제규칙(HCR)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눈다랑어 자원에 대한 모든 평가 기준에 합격점을 부여했다.

솔로몬제도 눈다랑어 연승 어업 심사 또한 성공적으로 합격점을 받았다. 해당 어업은 2019년부터 날개다랑어와 황다랑어를 대상으로 MSC 인증을 보유 중이며 지난 1월 눈다랑어 인증을 추가로 추진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21일자

EU 수산위원회, 모리셔스 수산협정 6개월 연장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참치 어업 가능

유럽연합 의회(EP) 수산위원회는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 참치 어업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현행 EU-모리셔스 간 수산협정의 6개월 연장에 합의했다.

EP 측에 따르면 해당 합의는 인도양에서 조업하는 EU 참치 어선에 있어 중요하다. 해당 합의는 또한 EU와 모리셔스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모리셔스 수역 수산 자원의 건강한 개발을 촉진하고, 모리셔스의 어업 감시·감독·관리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

이번 연장으로 신규 장기 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마지막 어업 협약의 만료 기간은 2021년 12월이었으며, 2021년 9월부터 유럽연합 위원회(EC)가 새 협정의 협상을 시작했다.

새로운 6개월간의 협정을 통해 EU 어업자들은 2,000톤의 참치를 어획할 수 있게 된다. 모리셔스는 총 28만 7,500 유로(약 28만 8,794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이 중 17만 7,500 유로는 어업 정책 개발을 목표로 사용된다.

EP는 올 가을 개최될 총회에서 최종 표결을 통해 협정의 연장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7월 13일자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 생산량 증가

포클랜드 수역 생산량, 중국 비슷, 대만 감소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는 아르헨티나 200해리 내에서 약 15만톤이 어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이다. 2021년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의 총 양륙량은 약 60만톤으로 알려졌다. 중국 선단의 200해리 내 어획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24~25만톤으로 전해졌다. 포클랜드제도 인근에서는 한국, 대만 선단이 조업 중이며, 어획량은 약 7만 3,000톤으로 대만 선단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체 크기는 주로 개체당 200~300g이며, 가격은 해상 운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대비 약 20% 상승했다. 엔화 약세 영향도 있어 일본 현지 업체들은 수요만큼만 사들이는 상황이라고 관계자가 전했다.

러시아산 살오징어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어기 시작 전까지 상황을 예의주시 중

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미 대왕오징어 어획량은 주요 산지인 페루에서 1~3월에 지난해 대비 반감했으며, 4~5월은 더욱 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진정 국면 등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아 몸통, 귀(耳) 모두 거래가격이 지난해보다 급등 중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페루의 2021년 어획량은 20~30만톤이다.

또 다른 주요 생산국인 칠레의 경우, 5월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양륙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칠레는 소형선으로 어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날씨 문제 등으로 어획량이 없는 기간이 있다. 여기는 1개월 정도 남은 상태로, 페루의 고가 추세에 이끌려 거래 가격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칠레의 2021년 어획량은 6~7만톤 가량이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8월 3일자

아르헨티나 상반기 일렉스 오징어 수출, 12% 증가

수산물 전체 수출량 기준, 한국 1위

아르헨티나 농축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르헨티나의 일렉스 오징어 수출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일렉스 오징어 수출량은 11만 5,135톤으로 지난해 동기 10만 484톤 대비 12.3% 증가했다. 수출금액은 2억 56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2억 4,530만 달러 대비 17% 증가했다. 2020년 동기에 비해서는 수출량이 7% 증가했고 수출금액이 16% 감소했다.

평균 수출 가격은 kg당 2.13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 상승했다.

상반기 총 수산물 수출금액은 8억 2,94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 감소했다. 수출량은 24만 8,356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수출 국가별로 보면 수량 기준 한국으로의 수출이 3만 1,341톤, 6,570만 달러로 1위였다. 중국, 스페인, 태국,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7월 29일자



러시아 7월 13일 어획량 250만톤 돌파

지난해 대비 4% 증가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러시아의 올해 연초부터 7월 13일까지의 어획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4% 증가한 258만톤을 기록했다. 러시아의 연간 어획량은 500만톤 규모로, 이미 절반 이상의 어획량에 달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1개월간의 어획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 증가한 42만톤이다. 극동과 북부 조업구역이 증가한 반면 해외국제협정 수역·공해 및 카스피해 등은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구 분	수량(톤)	전년비
극동	1,890,000	110%
북부	300,200	100%
발틱해	49,500	90%
아조프·흑해	24,000	76%
카스피해	50,000	90%
외국	256,400	84%
국제협정수역·공해		
기타	9,900	
합계	2,580,000	104%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8월 3일자

러시아 상반기 수산물 수입 급락...수출 급증

6월까지 20만 6,100톤 수입

러시아 통계 서비스 Rosstat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수산물 수입은 올해 상반기 동안 1/3 이상 감소했지만 수출은 급증했다.

6월까지 러시아는 20만 6,100톤의 수산물을 수입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35% 감소한 수치이다. 수입 금액은 31% 감소한 8억 1,45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 감소는 주로 냉동 어류 수입이 9만 1,000톤으로 35.5% 감소한 것과, 신선냉장 어류 수입이 8,800톤으로 56.5% 감소한 것에 기인했다.

반면에, 상반기 수산물 수출은 증가세가 계속되었다. Rosstat에 따르면 러시아의 상반기 수산물 수출

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 증가한 110만톤이며, 수출 금액은 24% 증가한 29억 루블(약 4,700만 달러)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상반기 냉동 어류 수출이 90만 8,700톤으로 15.6% 증가한 것에 기인했다.

러시아의 수산업은 부가가치 제품 생산 증대에 집중하고 있다. Rosstat에 따르면 러시아의 상반기 필렛 생산량은 34.5% 증가한 15만 7,700톤이다. 민스 포함 냉동 어육 생산량은 2배 가량 증가한 4만 500톤이며, 캔 제품 생산량은 5% 증가한 9만 9,300톤, 연어알 생산량은 15.8% 증가한 692톤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8월 9일자



러시아, 새 “해양 독트린” 우선 과제로 어업·양식 지목 신조선 건조, 어업·양식업 발전 추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7월 3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해양 독트린’ 갱신 명령에 서명했다.

어업·양식 개발을 위한 우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신조선 건조 프로젝트 실현과 국내 조선사 우선 발주를 위한 조건 정비
- 2) 러시아 EEZ 외부 및 세계 해양의 원격 어장에서 수생 생물자원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조업을 가능하게 하는 고효율 선박 건조 프로젝트 실시
- 3) 러시아 어선이 국내 수산가공업에 수산 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인센티브 창출
- 4) 수산가공냉장시설의 신규 건설 및 현대화
- 5) 과학연구의 범위규모를 확대하고 세계 해양의 수생 생물자원에 대한 정기적 조사와 모니터링 실시
- 6) 러시아 영해, EEZ, 대륙붕 수생 생물자원 보존 및 합리적 이용
- 7) 생태계 문제를 극복할 수산자원 인공번식, 어류·비어류 번식 및 재배를 위한 현대기술 개발과 사

용, 혁신적 바이오테크놀로지 파크 창설을 포함한 양식 개발

- 8) 현대적 통신·모니터링을 사용한 어선단 활동감시·정보처리시스템 개발
- 9) 현대적 어선단에 의한 해외 EEZ, 조약 수역, 공해 수역 수산자원 어획 증대
- 10) 국제 어업조직 참여, 국제 협조와 어업의 국제법적 규제 및 해양환경 보호·보존 활동 강화
- 11) 카스피해, 아조프해 수산자원 보전과 이용, 러시아의 이익 확보 및 귀중한 종과 멸종위기종 개체군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조치 개발 및 집행
- 12) 수산물 제품 등 세계시장에서 러시아의 위상 강화
- 13) 어획된 수산자원과 생산제품을 인증하는 국가 시스템 개발·실시

* 기사 출처: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 2022년 8월 5일자

FSA, 동사할린 명태 어업 MSC 획득

오호츠크해와 서베링해 인증에 이어

Russian Fishery Company(RFC)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러시아어선선주협회(FSA)가 동사할린 조업구역 명태 어업에 대한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을 받았다.

FSA는 앞서 오호츠크해와 서베링해에서 MSC

인증 받은 바 있으며 캄차카와 북쿠릴 어장에 대한 MSC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연간 어획량 500만톤 중 약 40%가 MSC 인증을 취득한 상태이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7월 20일자



러시아 수산회사, 명태 H&G 생산 집중

명태 H&G 가격대는 톤당 1,550~1,600 달러

명태 H&G(머리, 내장 제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필렛 대비 현금 전환이 빠르다는 이점으로 인해 H&G 생산을 늘리는 회사들이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 현재까지 러시아의 H&G 생산은 38만 4,179톤으로, 이들은 더블프로즌(냉동 상태에서 해동되어 가공된 후 2차 냉동된 제품) 필렛 가공을 위해 주로 중국으로 수출된다. 2022년 생산량은 2021년 대비 4% 감소했으나, 2020년 생산량인 54만 3,299톤 대비 29%로 대폭 감소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가공 부문이 가장 선호하는 25cm 이상 명태 H&G 가격대는 톤당 1,550~1,630 달러 선이다.

다른 러시아 어업회사 측 소식통에 따르면, H&G는 가격 상승, 중국 가공업체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 해당 소식통에 따르면 필렛을 유럽으로 수출할 경우 부산 경유 물류 비용을 컨테이너 1대당 1만 2,000 달러로 잡으

면 수입 측면에서 H&G와 큰 차이가 없다. 아울러, H&G는 현금 전환이 빠른 반면 필렛은 2~4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세 번째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H&G 가격은 부산을 거치기 전에 톤당 1,450 달러 선이며, 중국행 운송 및 소독 과정을 거치면 비용으로 톤당 약 150~200 달러가 추가된다. 중국 직접 수출 금액은 톤당 약 1,550~1,630 달러 선으로, 러시아 업계는 현재 청어와 연어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맘때가 되면 공급 속도가 더뎈다.

네 번째 소식통인 러시아 대형 어업회사 고위 임원에 따르면, 필렛에서 H&G로 전환할 경우 러시아의 자연산 연어 어획 시즌이 시작하기 전 어업 프로그램이 좀 더 예측하기 쉬워지며, 현금화가 빠르다는 이점도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7월 26일자

러시아, 수산물 철도 운송 보조금 추가 지원

철도 운송량 50만톤 증가 예상

러시아 정부는 어류·농산물을 전국으로 운송하는 국영 철도 시스템에 6억 8,300만 루블(약 1,170만 달러)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 연방 수산청에 따르면 추가 자금을 통해 생산자들은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곡물, 기름종

자, 채소류, 수산물, 광물, 비료 등을 러시아 전역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수산청은 운송량이 약 50만톤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7월 15일자



러시아 노레보·RFC 신조선 1척씩 인도

81m 대구·해덕대구 조업선, 108m 명태·청어 조업선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에 본사를 둔 조선소 Severnaya Verf와 Admiralty Shipyards는 국가 투자 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러시아 흰살생선 대기업인 노레보(Norebo), 러시아어업회사(RFC)가 발주한 2척의 신조선을 인도했다.



(Kapitan Skovlov호)

노레보의 선상가공 트롤선 10척 신조 계획 중 첫 번째인 Kapitan Sokolov호(号)는 Severnaya Verf에 의해 건조되었다. 해당 어선은 북대서양에서 대구와 해덕대구를 어획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전장 81m의 해당 어선은 15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 시설을 갖췄다. 이 중 40톤은 대구 및 해덕대구 필렛, 민스, 어란, 간, 어분 등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어획물을 낭비 없이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어선의 냉동 시설은 1일 100톤의 생산물을 저장할 수 있다.

노레보가 의뢰한 10척의 선상가공 트롤선 중 6척은

러시아 북부 어장에서, 4척은 극동 어장에서 조업할 예정이다.



(Kapitan Vdovichenk호)

RFC의 슈퍼트롤 10척 신조 계획 중 첫 번째 어선인 Kapitan Vdovichenk호는 Admiralty Shipyards에 의해 건조되었다. 전장 108m의 해당 어선은 러시아 극동 지역 명태·청어 어업을 위해 건조되었으며 수개월 내로 조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어선은 연간 6만톤을 어획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필렛 1일 80톤, 연육 1일 80톤, 어분 1일 250톤을 생산할 수 있다. 해당 어선은 또한 명란, 민스, 어유(oil) 등을 생산할 수 있다.

이번 신조선 2척의 건조는 예상보다 지연되어, 러시아 어업계가 투자 쿼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7월 14일자



美, 수입 금지된 러시아산 수산물 여전히 반입

중국 거친 제품, 원산지 추적 불가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가 월스트리트저널 지면을 인용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산 수산물이 수입 금지된 현재까지도 중국 등을 경유해 미국에 반입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6월 23일 이후 러시아산 수산물의 미국 내 반입은 금지되었다.

미국 무역위원회의 지난해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되기 전 러시아 수역에서 러시아 어선이 어획한 어획물의 27%는 가공을 위해 중국에 운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 제품화된 명태 필렛, 피시스틱(fish stick), 연어 통조림 등은 미국에 중국 수입품으로 반입되고, 심지어 러시아에서 어획된 냉동 게도 알래스카산으로 판매되는 일이 자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는 수입 금지를 회피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산물로 명태를 지목했다. 미국 알래스카명태생산자협회(GAPP)는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명태의 약 40%가 러시아 선단이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한 것으로 추정했다. GAPP에 따르면 이러한 명태의 대부분이 미국 반입 전 중국에서 필렛으로 가공되거나 냉동되어 중국산으로 산지가 변경된다.

하원 천연자원위원회는 새우, 참치, 게 등 13종에만 적용되고 명태, 연어 등 수입 어류의 약 60%가 제외되는 기존 수산물수입감시제도(SIMP)의 즉각적인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7월 27일자

러시아, 연해주 명태 1만톤 어획

동해 명태·청어 자원 증가 확인

러시아 과학연구기관에 따르면 올해 2022년 어기 러시아 어업자들은 봄철 포란기에 연해주 수역에서 약 1만톤의 명태를 어획했다.

해당 수역에서는 가을철에 다시 명태 조업이 재개된다.

최근 2년간 3월 말~4월에 걸쳐 연해주 나훗카 연안 앞바다로 명태자원 내유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연구기관인 VNIRO의 태평양지부 TINRO는 명태자원의 산란행동에 관

한 과학조사 활동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명태자원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2014년 급군으로 간주되고 있다.

TINRO에 따르면 명태와 함께 청어 자원의 증가가 확인되고 있어, 동해의 전반적인 수생 생물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정보를 수집 중이다.

* 기사 출처: 훗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 2022년 7월 22일자



美 명태 업계, 필렛 생산 집중...연육 생산 영향

연육은 생산 감소로 가격 상승

미국 알래스카명태생산자협회(GAPP)의 자료에 따르면 7월 말까지의 연육 생산량은 11만 2,231톤으로, 지난해 동기(12만 612톤) 대비 7% 감소했다. B시즌 조업이 시작된 6월 이후 연육 생산량 또한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다.

한 명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연육 생산이 감소했으나 지난해 어획물 상태 및 코로나19로 인한 일손 부족 등으로 연육 생산이 과도하게 많았기 때문에 연육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당 관계자는 본인의 회사가 2021년 생산이 어려웠던 딥스킨(껍질, 지방 제거) 및 PBO(가시, 뼈 제거) 필렛 생산을 B시즌에 집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B시즌이 약 80% 가까이 진행된 시점에서 알래스

카 명태 업계의 연육 생산량은 지난해 총 생산량의 약 58% 수준이다.

워싱턴 주에 기반을 둔 연육 제조업체 Sugiyo USA의 부사장 모리 요시노부는 가공업자들이 보다 고가인 필렛 생산에 집중하면서 연육 가격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연육 가격은 지난해 대비 10% 인상된 kg당 약 2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산 명태 제품 수입에서 일본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한국과 프랑스도 1분기에 지난해 동기 대비 수입이 45%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8월 3일자

英, 러시아산 흰살생선에 수입 관세 35% 부과

7월 20일부터

영국 정부는 7월 20일자로 러시아산·벨라루스산 흰살생선 대상 35% 수입 관세를 발효했다.

다만 관세 부과 대상의 명확한 기준을 두고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는 중이며, 확실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몇 주가 더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3국을 통해 운송되거나 가공된 제품의 관세 부과 여부는 여전히 정부-업계 간 협의에서 논의 중이다. 영국 최대 가공업체 대변 단체인 영국수산업연맹(USIA)의 Andrew Kuyk 사무총장은

“러시아 직수입 품목에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다른 산지에서 충분한 공정을 거친 품목에는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Kuyk 사무총장은 영국 수산 가공업체에서 사용하는 흰살생선의 대부분은 초기에 중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가공되기 때문에 35%의 관세 부담이 부가가치 가공 부문이 아닌 피시앤칩스 부문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7월 20일자



알래스카 명태 가격 견고, 향후 완화될 수도

미국 수산물 판매 감소, 명태의 경우 현재로서는 버틸 것으로 전망

알래스카 명태 생산자들은 높은 도매가격을 누리 고 있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들해진 국 내 수산물 시장에서 산업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 을 수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6월 냉동 수산물 매출액 은 7.4% 감소했다. 알래스카 명태는 보고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지만 업계의 여러 경영진에 따르면 현 재 필렛 블록 가격 톤당 5,000 달러가 B시즌(6~10 월)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시제거 필렛(PBO) 가격은 여 전히 견고하지만 시즌 후반에 완화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명태는 피시스틱(생선살을 막대 모양으 로 잘라 튀김옷을 입혀 튀긴 것)과 같은 비용 절감 품목과 연관되어 있고 유럽에서 대구와 같은 주요 흰살생선 대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여전히 가치있 는 어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신선 및 냉동 수산물과 같은 상황을 피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폭주하는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적응할 지는 불분명하다.

올해 1~6월 러시아 명태 생산량이 8.3% 증가했고 미국 B시즌 명태 사이즈가 450~650g 수준으로 좋 아 글로벌 명태 공급 위기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지난해 명태 사이즈가 작아 부가가치 필렛 생산이 감소하고 수리미 생산이 증가했었지만 올해는 사이 즈가 좋아 PBO, 껍질과 지방층 제거 필렛 (deep-skinned fillet)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알래스카 근해 어선을 운용하는 한 회사의 임원은 “프리미엄 제품의 가격이 좋은 상황이며 공장들은 큰 코로나19 관련 문제없이 전면 가동되고 있다”라 고 말했다.

7월 9일까지 deep-skinned fillet 생산량은 지난 해 동기 대비 8% 증가했으며 PBO의 생산량은 16% 증가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7월 18일자

日, 美 명태 연육 가격 역대 최고치

B시즌 kg당 120~150 엔

일본 어육 제품의 주 원료가 되는 미국산 명태 냉동 연육의 올해 B시즌(후반기) 가격은 각 등급 이 모두 순차적으로 인상되어 전 등급에서 최고 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미나토신문에 따르면 B시즌 명태 연육 가 격은 소규모 구매자 가격 기준 kg당 120~150 엔

이다. 가격 인상은 올해 들어 두 번째이다. 첫 번 째 인상 당시, A시즌(전반기) 상급 연육이 4월 들 어 3월 대비 kg당 60~70 엔, 하급품 kg당 40~50 엔 전후로 인상되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7월 25일자



日 연구기관 “쫄치 내유, 소푹 회복 예상”

어체 작은 0세어 중심...어기 늦어질 전망

일본 수산연구교육기구가 7월 29일 발표한 장기 어해황 예보에 따르면, 쫄치의 내유가 지난해보다 많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어기도 늦기 때문에 어황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일본의 쫄치 어획량은 1만 9,500톤으로, 2019년 이후 3년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어장이 일본 본토에서 먼 바다로 치우치는 경향으로 인해 자원 자체도 급감 추세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원은 다소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적다. 이번 조사 수역(서경 160도 이서)의 쫄치 추정 자원량은 2003년 시점 597만톤이었으나 2021년 85만톤으로 급감했다. 올해 추정 자원량은 6~7월 조사에 따르면 199만톤으로, 연구기관은 “약간 반등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어체는 소형화되고 있다. 쫄치 중 어체가 작은 0세어는 가공용, 어체가 큰 1세어는 선어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올해는 0세어 위주로, 1세어의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이다. 또한 조사 당시 1세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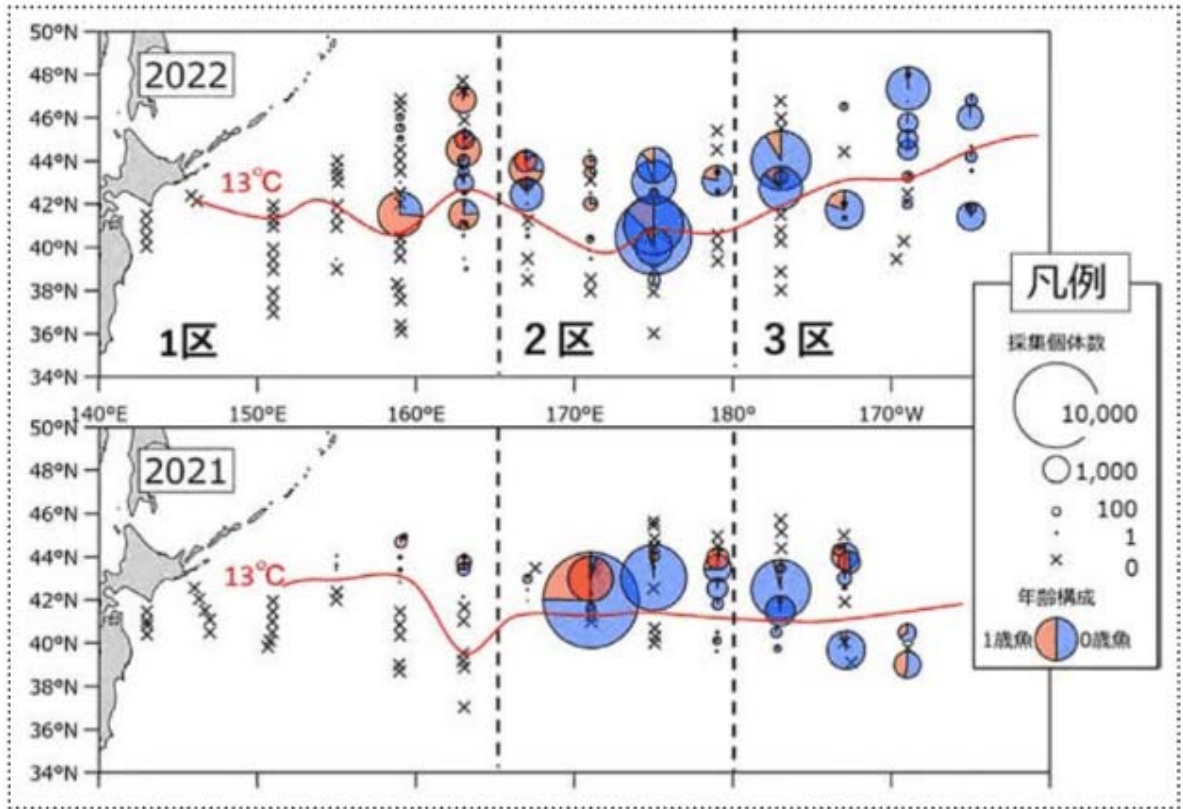
어체 무게도 지난해 대비 20g 정도 적었고, 주 어기에는 100~110g 정도의 작은 크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유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어장은 8~9월 이투루프 섬 동쪽 공해, 10월부터 도토(道東, 홋카이도 동부) 이남 일본 수역으로 확대되며, 산리쿠(三陸,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에서 미야기현 마쓰시마까지 이어지는 해안 지역) 수역에 이르는 것은 10월 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에서 어획되는 쫄치는 주로 봄~여름 동안 러시아 등 동쪽에서 먹이를 먹고 여름~가을경 북일본 주변을 지나며 서진하고, 겨울경 서일본 등지에서 산란을 목표로 하는 군이다. 그러나 이들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면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어체의 성장이 나쁜 올해는 이동 시작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오야시오 한류의 기세가 약하고, 쿠로시오 난류의 기세가 강해 쫄치가 선호하는 낮은 수온이 일본 근해로 확산되는 시기도 늦어질 전망이다.



〈6~7월 표층트롤 공치 자원량 조사 결과 (위: 22년 / 아래: 21년)〉



※ 큰 원: 1만 마리 / 작은 원: 1,000마리 / 가장 작은 원: 100마리 / 점: 1마리 / X: 0마리
 ※ 적색 원: 1세어 / 청색 원: 0세어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8월 1일자

日 냉동 공치 5월 말 재고 5,296톤 3개월 연속 5,000톤대

일본 농림수산업성 통계부가 발표한 2022년 5월 냉동수산물 재고량에 따르면, 전국 주요 냉동창고의 냉동 공치 5월 말 시점 재고량은 5,296톤으로, 3개월 연속으로 5,000톤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월 재고량과 비교하면 36% 감소했다.

월간 입고량은 326톤으로 52% 감소했고, 월간 출고량은 699톤으로 46% 감소했다. 수입을 통한 신규 재고 보충은 4~5월 통틀어 30톤 미만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8월 4일자



NGO, 美 인신매매 보고서 대만 등 평가 비판 한국 2등급 강등

지난 2022년 7월 19일 발표된 미국 정부의 최신 인신매매보고서(TIP)에서, 태국과 아일랜드가 주의목록(watchlist)에서 벗어났고, 대만은 다수의 강제노동 관련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어업 노동문제 근절 역량이 지정학적 이해관계로 인해 약화되고 있다고 다수 어업 관련 NGO 및 단체가 지적했다.

대만에 본부를 둔 NGO인 Serve the People Association(SPA)의 외국인 노동 정책 책임자 Lennon Ying-Dah Wong은 이 보고서가 미-중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만과 미국 간의 긴밀한 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Wong은 “외국인 노동자 차별, 강제노동, 인신매매, 인권·노동권 침해 등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대만인권협회(TAHR)의 Yi-Hsiang Shih 사무총장 또한 미국 국무부의 대만 1등급 유지의 실수이며, 이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만 정부가 인신매매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효과적으로 독려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인신매매 보고서에는 대만 정부가 2021년에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싸우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유죄 선고 비율 증가와 외국인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소 개선이 강조되었다. 또한 더 많은 모집 기관이 인신매매 또는 학대로 처벌 받았다. 보고서에는 국가의 법 집행 노력이 인정되지만 공무원들이 어업의 강제 노동을 적발·조사·기소하는데 충분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태국 인권단체 또한 최근 TIP에서 태국의 격상을 비판했다. 태국은 2021년 TIP 보고서에서 2등급 주의

목록으로 하락했으나 올해 다시 2등급으로 상향되었다. 태국 외국인노동자권리네트워크의 Suthasinee Kaewleklai은 태국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2등급 격상이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태국 교육개발재단의 Htoo Chit 이사장은 태국 수산업체들이 정치적 혼란을 피해 온 미얀마 외국인 노동자의 상황을 악용해 권리를 침해하고 적은 임금으로 가혹한 조건에서 일할 것을 강요했다며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2등급으로 강등됐다. 그 이유로는 △인신매매 범죄 기소 건수 감소,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추방 등 불이익, △성매매 관련 업자 조사 없음, △외국인 선원 대상 노동착취 방지, △관계 당국의 피해자 확인 지침 미활용,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 등을 꼽았다.

주요 권고 조치로는 △경찰, 이민, 노동 및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일관되게 사용, △성매매 종사자, 선원, 이주 노동자 등 취약 인구 중 피해자 사전 선별,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상응하는 처벌, △한국 국적 어선에 대한 강제노동 조사,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위한 노력 증진,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 중단, △인신매매범에게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포함하는 적절한 처벌을 선고 등을 꼽았다.

중국은 3등급을 유지했고 베트남은 2등급 감시 리스트에서 3등급으로 내려갔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20일자, 노컷뉴스 7월 23일자, Seafoodsource, 2022년 8월 1일자



MSC 규정, 어획통제규칙 관련 사항 변경

과학·정책 평가, 해결에 주어지는 기간 2~10년

올해 6월 해양관리협회의(MSC) 이사회는 MSC Fisheries Standard Q전 3.0을 승인했다.

MSC가 5월에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어획통제규칙(HCR) 문제와 관련해 2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변경되었다. 첫 번째, 평가에 대한 기존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두 번째, 인증된 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의 도입이다. 이러한 전략의 도입 이유는 '지역수산기구(RFMO)가 하나의 인증 주기 내에서 책임있는 모든 어종에 대해 효과적인 어획전략(harvest strategies)을 개발하고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춤형 채점 트리(scoring tree)를 통해 평가될 조건 경로 단계(condition pathway phase)가 도입되었다. 지역수산기구 관리 하에 있는 참치와 같은 타겟 어종의 어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조건 경로에는 2개의 단계가 있다. 하나는 과학에, 하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둘 다 적합성평가기관

(CAB)의 감사를 받는다. 첫 번째, 과학적 단계에서 어업은 어획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으며 보다 탄탄한 어획전략을 보장하는 관리전략평가(MSE) 완료를 입증해야 한다. 두 번째는 어업 관리자가 제안된 전략을 채택하는데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새로운 어획전략 정책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어획전략 및 어획통제규칙을 해결하기 위해 주어지는 기간은 인증 특성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다른 이전 인증에 포함되지 않은 어종, 처음으로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타겟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은 최신의 어획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하기 위해 최대 10년이 주어진다. 타겟 어종이 이전에 한 번만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어업은 어획전략 조건을 해결하는 데 최대 5년이 주어진다. 이전에 2개 이상 인증 받은 타겟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은 최대 2년이 주어진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28일자

WTO, 보조금 협정 1년 내 이행 촉구

통상 효력 발휘에 2~3년 소요

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에게 해양 보호를 위해 수산 보조금 협정을 1년 내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Okonjo-Iweala 사무총장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

은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데 2~3년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1년 안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7월 29일자



MSC, 유령 어구 관련 표준 변경

FAD 어업에 직접적 영향 미칠 전망

MSC가 유령 어구(Ghost gear, 아무런 조치 없이 바다에 버려져 환경에 해를 끼치는 어업 장비) 방지를 위해 자주 분실되거나 버려지는 어구와 관련하여 보다 강력하고 명시적인 요구사항을 갖도록 표준을 변경했다.

CAB는 유령 어구와 관련된 관행을 평가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지침을 갖게 될 것이다. 최신 MSC 표준 하에서 유령 어구, 그리고 FAD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MSC 어업 원칙1(어류 자원의 지속가능성)에서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또한 원칙2(환경 영향 최소화) 관련, 특히 ETP종(멸종위기, 멸종우려종, 보호종)과 서식지를 다루는 지표에 관한 새 요구사항이 도입되었다. 이 새 규칙은 어업이 어구의 손실(유실 또는 폐기된 FAD 포함) 및 유령 어구 영향의 최소화에 중점을 둔 관리

전략을 시행하도록 한다.

새 표준에 대한 지침서는 MSC가 유령 어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최소한의 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가이드를 제공해 CAB가 보다 철저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어업이 심사를 통과하고 지속가능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 될 예정이다.

새 표준은 현재 MSC 인증을 받은 다수의 현존 참치선망 FAD 어업(대부분 중서부태평양)에는 즉각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중서부태평양의 나우루협정당사국(PNA) 수역 내 최대 참치 어업에 대한 FAD 인증은 수개월 째 심사 중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유령 어구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8월 9일자

주요 국제 운임, 계속해서 하락

상하이발-로테르담행 4% 하락 등

해운업계 분석 기업 Drewry의 최근 회보에 따르면 중국에서 유럽, 미국으로 향하는 주요 항로의 운임이 지난 주 다시 하락하면서, 수산물 수출업체들의 부담이 조금 더 경감되었다.

상하이발-로테르담행 40ft 컨테이너 1대당 (FEU) 운임은 지난주 대비 4% 하락한 8,939 달러이며, 로테르담발-상하이행 운임은 1대당

1,119 달러로 지난주와 차이가 없었다.

상하이발-로스앤젤레스행 운임은 지난주 대비 3% 하락한 1대당 6,985 달러였으며, 상하이발-뉴욕행 운임은 9,774 달러로 지난주 대비 1% 하락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8월 4일자



항만 혼잡으로 컨테이너 운송 차질 계속돼

칭다오-로테르담 등 해상·지상 물류 문제 지속

영국 선박중개업체 Clarksons의 리서치 부문에 따르면, 7월 20일 컨테이너선 항만 혼잡지수는 37.9%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0월 말 기록된 이전 최고 수준 대비 매우 높은 수치이며, 코로나 이전인 2016~2019년 평균치(31.5%)보다 월등히 높다.

Clarksons에 따르면 전 세계 항구들이 이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국 서부 연안 지역이 특히 심각하다. Clarksons는 육상 물류 문제 및 미국의 계속되는 소비지출 강세가 혼잡을 더욱 부추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다가오는 노사협상 및 잠재적 여파를 둘러싸고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유럽의 경우, 철도·바지선·트럭 운송 혼잡 및 최근 독일 항구 파업으로 인해 높은 혼잡도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영국 최대 컨테이너 항구인 Felixstowe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상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날씨 문제가 홍콩, 선전, 닝보 항구에 영향을 미쳤다. 칭다오의 핵심 수산물 가공 항구는 6월 물류 기록을 경신했다. Clarksons는 코로나19 관련 규제 및 절차가 여전히 중국 항구에 영향을 미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7월 28일자

中, 소말리아 수역 원양어업 기회 증대 논의

양국 관료 회동

중국 관료들과 어업계 임원들이 소말리아 수역 원양어업 기회 증대를 논의하기 위해 소말리아 측과 접견했다. 소말리아 수역에서는 이미 여러 중국 어업회사가 참치 및 기타 어종을 대상으로 활동 중이다.

Fei Sheng Chao 주소말리아 중국 대사는 Li Le Fu 중국 농무부 어업국 정책실장, Chen Xue Jian 중국 원양어업협회장을 비롯한 어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온라인 회의를 주재했다.

Fei 대사는 성명을 통해 “중국 어업회사들이 법, 규제, 유효한 허가, 양자간 협력 체계, 중국

및 소말리아의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Fei는 또한 주소말리아 중국 대사관이 중국 선원과 외국 선원간 관계만이 아니라 소말리아의 어업회사 및 정부 기관과 모든 단계에 걸쳐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이란 선단은 소말리아 수역에서의 불법 조업 혐의를 받아 왔다. 그러나 중국 언론은 중국이 국영 군수항공기업인 AVIC가 소말리아에 전투기를 공급하는 대가의 일환으로 어업 접근권을 받은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7월 13일자



책임어선기준(RFVS) 업데이트

심각한 인권 침해, 불법 미성년 노동 무관용 정책에 포함

세계수산물연맹(GSA)은 선상에서의 공정한 근무와 생활환경 보증을 제공하는 인증인 책임어선기준(RFVS)의 업데이트 버전 Issue 2.0을 발표했다.

현재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인증이 만료될 때까지 Issue 2.0이 적용되지 않는다. Issue 2.0 적용 전에 인증 평가가 진행 중이었던 선박은 Issue 2.0으로 전환하는데 1년이 주어질 것이다.

현재 RFVS 인증을 받은 선박은 27척(선원 610명)이다. GSA는 2개의 선단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나우루협정당사국(PNA)의 시장개발기업인 Pacifical은 올해 초 MSC 참치 공급망 전체에 RFVS 적용 추진을 시작했다.

Issue 2.0에서 이전 버전과 달라진 사항은 지원선을 포함하는 범위확장 등 몇 가지가 있다.

· 선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불법 미성년 노동 이용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 무관용 정책(ZTP)에 포함했다. 여기에는 무관용 정책이

무시되는 경우의 조정 절차가 포함된다.

- 선단에서 운용하는 보급선 또는 지원선도 감사를 받게 된다. 또한 어선에서 근무하는 젊은 구성원에 관한 조항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한다.
- 선원 급여 지불 관련 모집 기관(recruitment agency)과 공급자(supplier) 또는 제공자(provider)의 차이를 명확히 한다. 모집 기관은 '어선주를 대신해 선원을 모집하거나 어선주와 함께 선원을 배치하는 공공 또는 민간 분야의 모든 사람, 회사, 기관, 기타 조직'을 의미한다. 반면, 노동 제공자는 '계약된 선원을 그들의 서비스를 찾는 어선주에게 배정하는 공공 또는 민간 분야의 모든 사람, 회사, 기관, 기타 조직'을 의미한다. 노동 제공자는 제공한 모든 선원을 보상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7월 26일자

28주차 노르웨이 고등어 수출 가격 반등

600g 미만, kg당 18.42 크로네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에 따르면 28주차 600g 미만 냉동 고등어 수출 가격은 27주차에 연 저점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이후 반등해 kg당 18.42 크로네를 기록했다.

28주차 수출량은 지난주 대비 28% 감소한 1,578톤이며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EU로의 수출량이 604톤으로 가장 많았다. 수

출 평균 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한 kg당 18.56 크로네였다. 베트남으로의 수출량은 372톤, 수출 평균 가격은 15.19 크로네였다.

600g 이상 고등어 수출은 수출량 360톤, 수출 평균 가격은 20.4 크로네이다. 수출량은 전년 대비 400% 증가했지만 가격은 8% 하락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7월 22일자



바다로 나가볼까

이 상 호

바다에는 커다란 음반 하나
밤낮 돌면서 제 가슴을 비워
푸른 물소리를 만들고

물에서 뜻을 잃은 새들은
바다로 가서 바람에 귀를 씻고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데

나도 마음 한구석 설레며
바다로 나가볼까 몸 기울여
바다가 될까

가까이 갈수록 조금씩 몸을 감추었지만
음질이 좋은 푸른 음반은 돌면서
흐린 내 귀를 씻어주는데 바다에 몸 기울인 새들은
날아서 뜻을 짓는구나

떠나간 이여 떠나간 이여
바다를 버린 새들만이
진실로 바다로 돌아올 수 있다네

가슴에 막막한 구름 흐르거든
오늘 밤 비 내리기 전에
바다를 향하여
마음 열어도 좋으리





7월 오징어 국내 동향

연근해 생산 및 원양산 반입 늘어 전월 대비 생산량 증가

□ 생산동향(7월 오징어 생산량, 전월 및 작년 동월보다 많은 1만 858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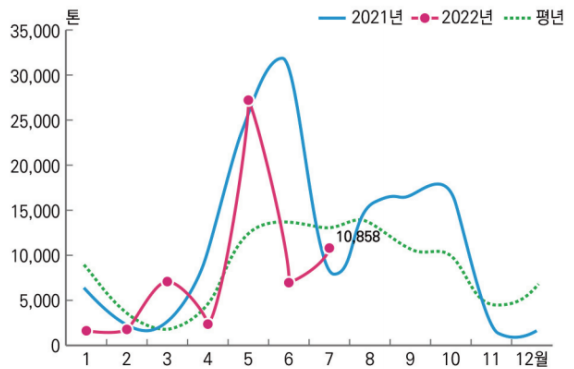
2022년 7월 오징어 생산량은 1만 858톤으로 전월(6,885톤) 및 작년 동월(8,458톤) 대비 각각 57.7%, 28.4% 증가했다.

연근해산은 4,028톤으로 전월에 비해서는 75.3% 늘었으나 작년보다는 26.7% 적었다. 이는 높은 유류비로 인한 출어비 부담으로 조업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역별 위판량을 살펴보면, 서산수협 위판량이 1,18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군산에서도 658톤이 위판되는 등 예년에 비해 서해안에서의 오징어 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양산 반입량은 전월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6,830톤으로 작년(2,963톤)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많았다.

한편, 2022년 7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5만 6,052톤으로 작년(86,379톤)보다 35.1% 적었으며, 평년(58,663톤)과는 비슷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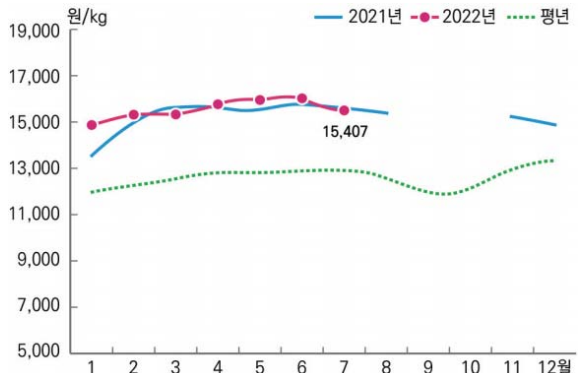


주 : 2022년 7월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해양수산부, 잠정치는 당 센터 추정 결과

□ 가격동향(7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kg당 15,407원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

7월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kg당 4,383원으로 전월 대비 28.3% 상승했으나 도매가격은 11,395원으로 전월 대비 18.5% 하락했다.

오징어(냉동)의 도매 및 소매가격은 각각 kg당 9,369원, 15,407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4.0%, 3.6%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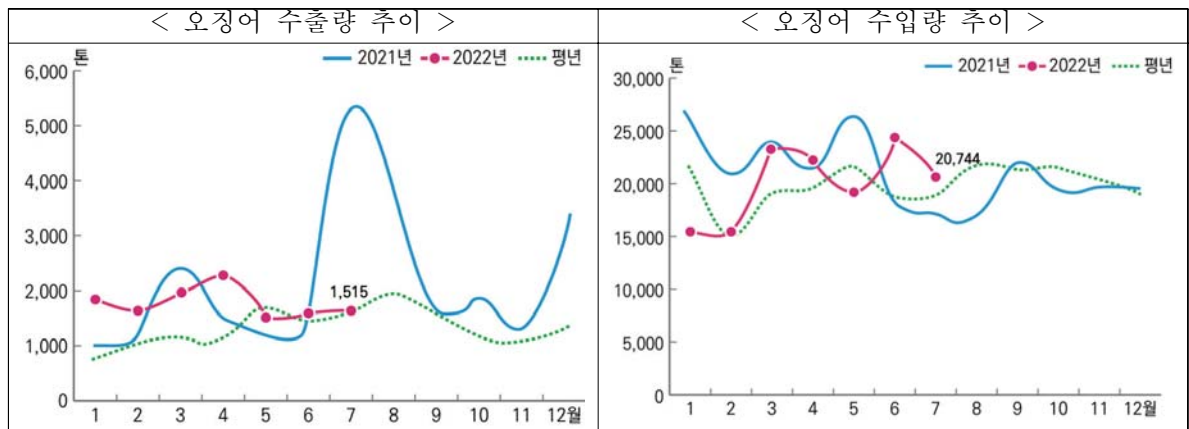
주 : 2022년 7월은 잠정치임
자료 : aT KAMIS



□ 수출입동향(7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12% 감소한 2만 744톤)

7월 오징어 수출량은 전월과 비슷한 1,515톤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가 1,276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1,171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으로는 165톤이 수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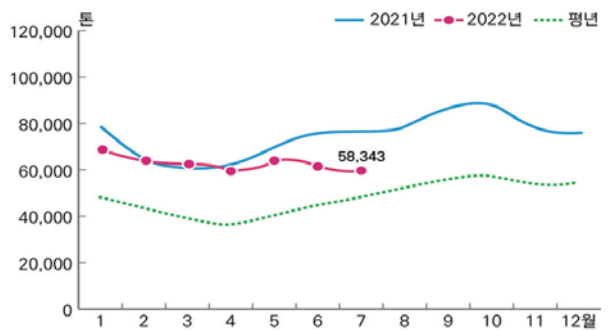
7월 오징어 수입량은 2만 744톤으로 전월 대비 12.0% 감소했으나, 작년 동월보다는 21.7% 많았다. 페루산이 8,974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산 8,104톤, 칠레산 1,774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13만 9,254톤으로 평년과 비슷했으나 작년(154,402톤)보다는 9.8% 적었다.



□ 재고동향(7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3% 감소한 5만 8,343톤)

7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은 5만 8,343톤으로 전월(60,237톤)에 비해 3.1% 감소했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22.4% 적었다.

연근해산 재고량은 전월과 비슷했으며, 원양산은 전월 대비 4.3% 감소했다.



* 자료 출처: KMI 수산관측 8월호



7월 명태 국내 동향

7월 중순부터 원양트롤러선 조업 시작, 반입된 물량은 없었음.

□ 생산동향

7월 중순부터 원양트롤러선이 조업을 시작했으나, 7월 말까지 반입된 물량은 없었다. 7월 말까지 어획량은 1,737톤으로 전년 대비 63.8%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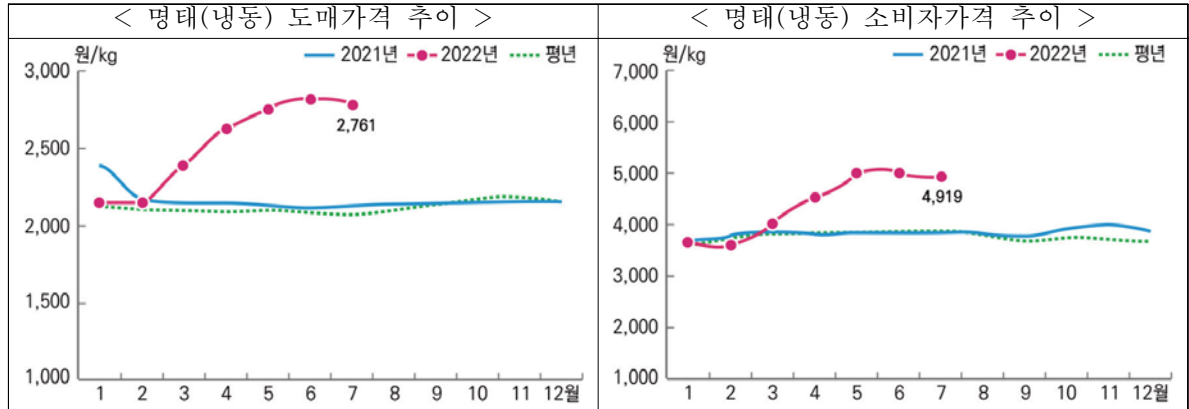
□ 가격동향(7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kg당 4,919원으로 전월에 이어 약보합세)

7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전월(2,790원) 대비 1.0% 하락한 kg당 2,761원이었다.

B시즌(6~11월, 베링해에서 조업) 명태 물량이 원활하게 수입되면서 3월부터 가파르게 오르던 상승세가 멈추고 약보합세를 보였다.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30% 정도 높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도 도매가격의 약보합세와 더불어 정부비축물량 방출의 영향으로 전월(4,969원)에 비해 1.0% 하락한 kg당 4,919원이었다.

여전히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는 각각 26.6%, 27.0%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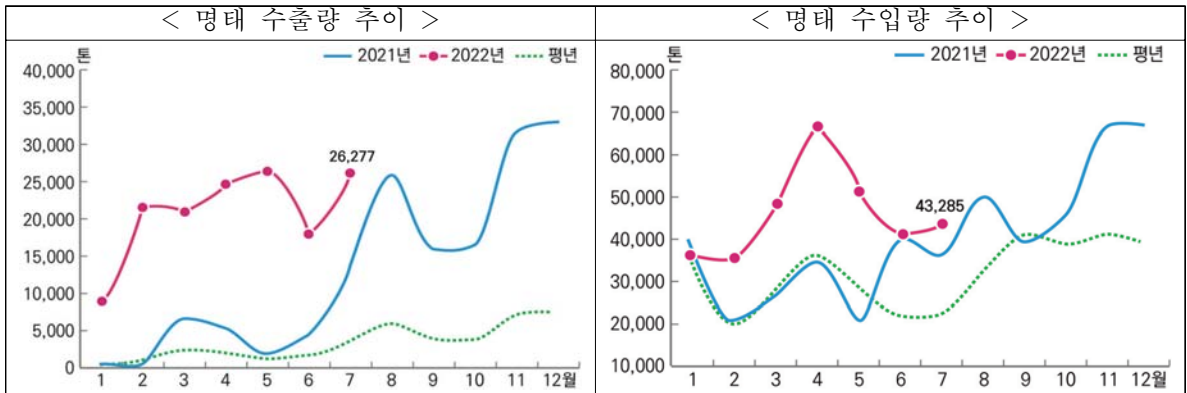


□ 수출입동향(7월 명태 수입량, 4만 3,285톤으로 전월 대비 10% 증가)

7월 명태 수출량은 중국으로 재수출물량이 다시 늘며 전월(16,968톤)보다 54.9% 증가한 2만 6,277톤이었다. 재수출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던 작년 동월에 비해 두 배, 평년에 비해서는 7배 많았다.

수출대상국 및 제품형태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 냉동명태 2만 3,425톤과 냉동필렛 190톤, 베트남으로 냉동명태 489톤 등이 수출되었다.

명태 수입량은 4만 3,285톤으로 전월(39,397톤) 대비 9.9% 증가했다.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 각각 23.5%, 92.0% 많았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 수입량이 2만 7,639톤으로 전월(20,522톤) 보다 증가했으며, 러시아산 냉동필렛 6,378톤, 미국산 냉동연육 5,384톤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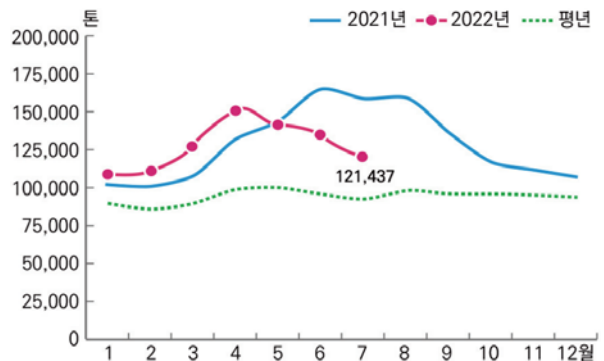


□ 재고동향(7월 재고량, 전월보다 감소한 12만 1,437톤)

7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전월(134,895톤) 대비 10.0% 감소한 12만 1,437톤이었다.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23.2% 적었으나, 평년보다는 32.6% 많았다.

앞으로도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수출입량이 민감하게 변동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자료 출처: KMI 수산관측 8월호



8월 이달의 수산물 오징어·참돔 선정

해수부, 보도자료 배포 등 소비촉진 나서

해양수산부는 무더위를 날려줄 8월 이달의 수산물로 오징어와 참돔을 선정했다.

오징어는 동의보감에 혈을 보강하고 기운을 돋운다고 쓰여 있다. 또한 먹물이 있어 묵어(墨魚), 까마귀를 먹는 도적이란 뜻의 오적어(烏賊魚)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타우린이 풍부하여 피로회복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은 오징어는 회로도 좋지만 데쳐서 먹으면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으며, 오징어에 삼겹살, 양파, 버섯 등을 넣고 매콤하게 볶은 요리도 일품이다.

도미과에 속하는 돔은 주로 횡감으로 사용하는 고급 어종으로 참돔, 돌돔, 감성돔, 뽕에돔이 있다. 돔 중에 으뜸인 참돔은 '바다 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맛과 식감이 뛰어나며, 어두일미(魚頭一味, 생선 가운데 가장 맛있는 부위)라는 말이 참돔에서 유래될 만큼 버릴 것 하나 없는 귀한 생선이다.

참돔은 회로 먹어도 좋지만 얼큰하고 칼칼한 맛이 매력적인 매운탕과 달콤한 맛과 짠 맛의 모미를 살린 조림 등 다양한 요리로 맛있게 즐길 수 있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8월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여름철에 참돔과 오징어로 기력을 회복하고, 건강도 덤으로 챙기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8월 이달의 수산물

여름 바다의 맛 참돔, 오징어 더 알고 싶어?



참돔

'바다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맛과 식감이 뛰어난 생선. 회, 매운탕, 조림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고급어종

오징어

타우린이 풍부하여 피로회복과 심혈관계질환 예방에 좋은 쫄깃쫄깃 맛있는 오징어





추석 장바구니 물가,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로 잡는다 8월 15일부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추석 명절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15일(월)부터 9월 12일(월)까지 29일 동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 (온라인 일정: 8.15.(월) ~ 9.12.(월), 오프라인 일정: 8.18.(목) ~ 9.12.(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수산물 구입 시 20~30% 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 20개 성수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행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지에스(GS) 리테일,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포함한 13개 오프라인 업체와 에스에스지닷컴(SSG.com), 쿠팡, 11번가 등 24개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포항시산림조합, 군산로컬푸드직매장 등 25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이 참여한다. 1인당 2만원(로컬푸드 직매장은 3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에 소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1인당 할인 한도를 기존 1만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하여 추진된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온누리 전통시장, 온누리 굿데이 등 전통시장 온라인몰 3곳과 전통시장 배달앱 '놀러와요시장'에서 구매 시 1인당 3만원 한도로 30% 할인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을 방

문하는 소비자들은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2~4만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통시장 제로페이 수산·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산물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행사도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한다(가맹점: 농할상품권 588개 시장, 4,568개 점포, 수산 729개 시장, 13,339개 점포).

한편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국민들께서 추석 상차림과 장바구니 물가 걱정이 많으신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산물 할인대전을 통해 신선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시길 바란다.”라며, “해수부는 지속적으로 수산물 수급 안정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사무	신현애	589-1602	해외협력본부장
이사	이형균	589-1603	경영지원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강성현 부장	589-1604	총괄
	공길웅 과장	589-1605	총무, 자금
	조성환 과장	589-1606	사무관리, 차량운영
기획홍보부	이형균 이사	589-1607	총괄(겸직)
	김영수 과장	589-1608	기획, 홍보
	김민재 사원	589-1609	원양뉴스, 생산통계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김효상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동환 주임	589-1619	노사, 선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상무	589-1612 총괄(겸직)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협력
		백상진 주임	589-1614 참치선망
	-	589-1615 참치연승	
해외협력 2부	진호정 부장	589-1616	총괄
	조성주 과장	589-1617	복양, 품치
	최상진 사원	589-1618	오징어, 기타트롤
부산지부	-	(051) 253-3388	총괄
	이성재 이사		확인업무(수출, 반입등)
	김현애 과장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051	차량계량
	최광준 팀장	253-3391	차량계량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
		류진호 행정관	044-868-7837 OFS, 해외수산투자, 행정
국제협상지원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물
		044-868-7836	ODA
국제협상지원팀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통계, 협의회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물
국제협상지원팀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물
		-	044-868-7836
국제협상지원팀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통계, 협의회
		044-868-7838	통계, 협의회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운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675-321-8137 jc651016@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48호

발행 : 2022년 8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윤명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건강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양망)」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홍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	-----------------------------------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	------------------------------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	----------------------------------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	---------------------------

	조기류(민어과) 저수용 생선으로 저칼
---	--------------------------------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	----------------------------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나다.
-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나다.